metro
메트로 2014년 6월 2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투표로 응원합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1일 서울 명동에서 6·4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토종 패션업체 설 땅 잃어간다

르포

해외브랜드 공습 이파 신사동 가로수길 잠식
빅3 SPA 지난해 매출 1조원 넘어 30% 성장
사라진 국내상표 40여 개 ─ 판권수입 치중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로12길과 도산대로13길을 묶어 이름붙여 진 곳. 600여m 길이의 왕복 2차로에는 은행나무가 줄지어 있어 예술가의 거리 '가로수길'로 불리게 됐다. 처음에는 화랑과 국내 디자이너 쇼룸 편집숍 등이 다닥다닥 붙어 개성 넘치는 제품들을 선뵈 '한국의 소호'로 알려졌다. 조용히 게 유명세를 탔던 이곳이 자본력을 앞세운 국내 외 SPA 브랜드와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난립으로 지금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대형 매장의 이전과 이 상권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해외 브랜드가 출점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편의 전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커진 패션 시장 해외 SPA만 생존

국내 SPA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원을 돌파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글로벌 빅3 SPA 브랜드인 유니클로·자라·H&M의 지난해 매출 총액은 약 1조 45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0% 상승했다. 이는 국내 전체 패션 시장 성장률이 4.4%에 불과한 데 비해 7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SPA 시장규모가 2015년 5조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국내에 자리잡은 글로벌 SPA 브랜드들이 세컨드 브랜드를 통해 올해 국내 시장 진출을 예고한 상황이라 당분간 온도차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한 패션 브랜드 관계자는 "아직도 국내에 진출하지 않은 글로벌 SPA 브랜드가 많다. 적어도 향후 5년은 글로벌 SPA 브랜드가 국내 패션 산업을 뒤흔들 것"이라며 "국내 패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특히 디자이너 개별 브랜드의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라지는 토종 패션 브랜드

한국패션협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라진 토종 패션 브랜드는 40여개에 달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브랜드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패션은 유행에 민감하고 시즌 상품 매출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이라 소위 돈 되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게 기업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런 사정으로 국내 패션시장에서 잘나가는 토종 브랜드 찾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새 브랜드의 등장을 기대하는 것도 힘들어진 상황이다. 그나마 국내 대기업과 백화점들이 버티고 있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그리 좋지않다. 해외 브랜드 판권 수입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LF의 경우 전체 운영 중인 브랜드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해외 브랜드다. 신세계백화점 계열의 한섬은 지난해 4개의 해외 브랜드 판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 애초부터 해외 브랜드 수입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했다. 30개가 넘는 브랜드 가운데 올해 초 기준 국내 브랜드는 5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의 해외 브랜드 유지는 무조건 잘못된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패션 브랜드 하나를 론칭해 정상궤도에 올리려면 적어도 5년은 걸린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의류사업은 어느 사업보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그만큼 위험 부담 요소가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교적 좋은 조건으로 판권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국내 패션 업계의 거대 자본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토종 브랜드는 새싹 틔울 기회조차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면에 계속>

메트로 모터 특별판 배포 메트로신문은 30일부터 열리는 '2014 부산국제모터쇼' 행사에 맞추어 특별판을 제작, 서울 지하철역과 부산모터쇼 행사장에서 배포했다. 사진은 1일 부산 벡스코에서 모터쇼 관람객을 대상으로 특별판을 전달하는 모습.

산업재해예방 협약 안전보건공단 백헌기 이사장(오른쪽)과 주택관리공단 이봉형 사장이 지난달 30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사고성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기반 제공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교육 및 안전보건기술자료 제공 ▲지역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한 근로자 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딸 외면 교육감 자격 없다"

고승덕 후보 딸 SNS 폭로 파문… "부덕한 제탓 사퇴 없어"

6·4 지방선거를 3일 앞두고 고승덕 서울교육감 후보가 딸의 SNS 폭로로 뒷걸음질 쳤다.

고 후보의 딸 희경(27)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승덕 씨는 자신의 자녀 교육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자신의 피붙이도 가르칠 뜻이 없는 그 분은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영문 글을 올렸다.

희경씨는 "어머니가 나와 동생을 뉴욕의 학교에 보내려고 미국으로 데려온 뒤 고 후보는 한국에 남았고 이에 우리와 연락을 끊었다"며 "11살 때 아버지 없는 삶에 적응해야 했다"고 적었다.

이어 "전화와 인터넷이 있었는데도 나와 동생의 안부를 묻은 적이 없다"며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금전적인 부분을 포함해 우리의 교육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SNS를 통해 대거 확산됐다.

이와 관련, 고 후보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딸이 아버지를 향해 이러한 글을 쓴데 대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임을 인정하고 서울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민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고 후보는 또 "딸의 글이 고 박태준 회장의 아들과 문용린 후보의 야합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정황이 의심스럽다"며 "저의 자녀를 이용해 저를 후보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정치에 맞서겠다"고 반발했다.

지난달 31일 희경씨의 외삼촌이자 박 회장의 아들은 문용린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희경씨의 글에 담긴 내용이 자신의 집안의 생각과 같다"며 문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윤다혜기자 yd@metroseoul.co.kr

속 타는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한 고승덕 후보가 1일 서울 을지로3가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뉴욕의 소호처럼 한류거리 조성 정착을

<1면에서 계속>

◆ 한류 … 정체성 확립이 우선이다

다시 가로수길로 돌아와 보자. 강남구청은 지난해 강남 각 지역의 특징과 문화를 살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뉴욕의 소호 못지않은 명소를 만들 계획으로 도심관 을 레길, 한류거리(K ROAD) 조성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물론 가로수길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현재 올 12월까지 3단계에 걸친 한류스타거리(K STAR ROAD)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후 사업 전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게 없다고 강남구청 관계자는 전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거리 조성 사업을 시작하며 "한류스타 거리로 시작되는 '한류거리(K ROAD)' 조성사업은 강남문화를 알리는 출발점이자 뉴욕·런던·파리·상해 등 주요 도시에도 수출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면서 "한류의 강남 브랜드화를 통해 글로벌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해외 브랜드가 절반 넘게 들어찬 이곳에서 해외 브랜드들의 2차 공습이 조읽기에 들어갔다. 가로수길의 향후 모습은 한류를 입고 있어야 한다. 한류 브랜드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디자이너의 산실이었던 이곳의 정체성을 되찾는 게 우선이다. 시간이 그리 많이 보이진 않는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안전처 차관, 소방방재청 출신으로"

윤상현 새누리 사무총장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1일 "정부조직 개편에서 소방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소방의 위상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중앙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차관을 소방방재청 출신으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소방방재청의 수장에 차관급인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을 임명하게 돼 있는 반면 국가안전처의 소방본부장은 1급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방조직이 강등 되는 것으로 보고 반발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위다은기자

안보실장 김관진·국방장관 한민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사진 왼쪽) 국방장관을, 국방장관에는 한민구(오른쪽) 전 합참의장을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신임 국방장관은 새로 임명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임명할 예정이었지만 총리 내정자의 사퇴로 중요한 시기에 오랫동안 공백 상태로 둘 수가 없어 정홍원 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들을 지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김관진 내정자는 군에서 야전과 작전, 전략 분야를 두루 거치며 국가안보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분"이라며 "내년여간 국방장관으로 국방을 책임져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안보장관회의의 구성원으로 안보와 외교 등의 분야 정책결정에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실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육군참모총장과 수도방위사령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를 역임 정책과 전략기획에 정통한 인사다. /김민준기자 mkim@

사전투표 '20대 이하' 가장 많았다

16% 기록… 30대 9.41% 최하

지난달 30~31일 실시한 6·4지방선거에서 20~30대와 50~60대의 세대간 사전투표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선관위는 1일 "사전투표 분석 결과, 연령대별에서는 20대 이하가 15.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 12.22%, 50대 11.53%, 70대 이상 10.0%, 40대 9.99%, 30대 9.41% 순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세대로 구분지을 경우 2030세대는 25.38%, 5060세대는 23.75%의 사전투표율을 보여 엇비슷했다.

연령과 성별을 모두 감안한 사전투표율은 20대 이하 남성이 16.91%로 가장 높았고 50대 남성 11.86%, 60대 이상 남성 11.29%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8.05%로 가장 높았고 대구광역시가 8.0%로 최저를 기록했다. /김민준기자 mkim@

군 인권침해 상담 '민간 핫라인' 개설

군대에서 폭력, 성희롱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 지원의 전문 상담전화가 만들어진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군 전문 상담전화 '아미콜(Armycall)'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아미콜 전문상담원으로는 군 조직과 인권구제 절차 등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일반인 지원자 28명이 활동한다. /김민준기자

동대문, 주민 숙원사업 해결

서울시 동대문구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가정길 전농동 래미안아름숲아파트 앞에 U턴 차로를 설치하는 교통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지난달 25일 개통했다.

이번 교통개선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아파트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시 U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

서울시 송파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4 우리동네 예술학교'를 운영한다.

교육은 주2회(화·토) 6시간씩 총 198시간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은 바이올린·비올라·첼로·클라리넷·플룻·트럼펫·트럼본 등 1인 1악기를 다루게 된다.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 추진

서울 금천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이달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면당 200만원미만 조성이 가능한 1~20면의 소규모 부지로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유병언 추적 검경 또 헛발질

도피 차량 5일 만에 발견…지문 등 증거 확보 실패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에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도피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쏘나타 승용차를 감식한 결과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일 "승용차에 대해 감식을 벌였지만 차량 내·외부에서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차량의 핸들이 가죽으로 돼 있어 운전자의 지문이 남아 있지 않았다. 흔적을 지우려고 지문을 닦은 것 같지는 않다"며 "일반적으로 차량 안에는 지문이 잘 남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의 도피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차량은 금수원 관리인이자 오랫동안 유씨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양회정(55)씨가 유씨 도주를 도우려고 마련한 것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순천 톨게이트 인근 주유소 폐쇄회로(CC)TV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경찰이 이 차량의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29일 오후까지 닷새 동안 이 차가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파악을 못 했다는 점에서 검경의 추적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차량 트렁크와 내부에 남아 있던 동산가방과 물병 등 유류품은 아직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물병에는 DNA 정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커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며 "다만 범죄자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DNA 정보가 나온다면 탑승자의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방송대 교직원 마늘밭에서 '구슬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직원들이 지난달 29일 충남 태안군 남면의 '뒷골마을'에서 마늘 수확에 힘을 보탰다. 서울·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북지역의 교직원 82명이 4~5명씩 조를 이뤄 20여 농가에 흩어져 봉사활동을 펼쳤다. 방송대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 5월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2리에 있는 '뒷골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공

교육재정 9300억 미리 써 내수부진에 상반기 집행

이재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경기가 부진하자 정부가 하반기에 쓸 교육 재정을 앞당겨 상반기 중에 예정보다 9300여억원 더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확대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당초 계획보다 1.9%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 분야 137개 주요사업의 연간 재정투입액은 49조1785억원으로 상반기에 연간 재정의 59.5%에 해당하는 29조2447억원을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해지자 상반기에 9333억원의 재정은 미리 투입해 재정 집행률을 61.4%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윤다혜기자

범씨 해수욕장 개장 부산의 해운대, 광안리, 송도, 송정 등 4개 해수욕장이 1일 오전 10시부터 잇따라 개장식을 하고 피서객 맞이를 시작했다. 이 해수욕장들은 9월 10일까지 운영된다. 이날 개장한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 빨지 그라솔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미끼 사이트'로 회원모집 불법도박 운영 일당 검거

자신이 운영하는 무료 스포츠토토 정보제공 사이트 회원들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유명 정보제공 사이트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스포츠토토 정보제공 사이트 업체 N사 대표 이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3월부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씨는 아들에 4월 회원들 간 스포츠경기 결과를 공유하는 무료 스포츠토토 정보제공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도박사이트 회원을 끌어모으기 위한 '미끼 사이트'였고, 가입자 수만 22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이씨는 사이트 회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도박사이트 주소를 보내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로 끌어들였다. 이씨가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중에는 최대 1억원 이상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사람도 상당수였다. /김현준기자

유병언 사진 고가강매 측근도 구속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오경석(53)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를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 오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구원파 교회에서 설교하는 채널 중 한 명이기도 한 오씨는 2011년 설립한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가 지난해 10월 다른 계열사인 천해지에 합병될 때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는 유씨 사진 작품집 '아해 컬렉션'이나 사진을 이용한 달력 등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창구 기능을 했다.

'아해 컬렉션'의 제조원가는 240만원 가량으로 유씨는 해외에서는 이를 한부당 448만원에 판매한 반면 국내 구원파 신도들에게는 1500만원에 떠넘겼다. 이를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려 2011~2013년 유씨의 루브르박물관 전시회 자금을 지원했다.

또 2011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 67억6000만원을 유씨 장녀 섬나(48)씨가 운영하는 모래알디자인에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정기자

성신여대 총학·미화원, 간담회

성신여대 제29대 총학생회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학교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의 환경 관리 등을 통해 면학 분위기에 도움을 주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화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해 그들의 업무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환경미화원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해 대학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범인 체포때 '뒷수갑' 원칙

시민단체 "과한 공권력" 반발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경찰관서에 인치할 때까지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방식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갑 등 사용 원칙'을 제정해 전국 경찰에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법률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 경찰청 훈령 등에 산재한 수갑 관련 규정을 정리해 묶은 수갑 사용의 상황별 사용 방침이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인치할 때와 호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주나 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적으면 앞으로 수갑을 채우는 '앞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윤다혜기자 yd@

중·장년여성 취업교육 진행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중·장년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을 도와주는 400여개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시에서 운영 중인 여성능력개발원과 여성발전센터 6곳은 취업준비 교육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또 교육과정 수료 후에는 취업 연계서비스도 지원한다.

교육 분야는 정보화 강사양성, 조리, 제과·제빵, 미용, 의상 등이다.

교육 내용과 일정, 교육비 등 자세한 내용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프간 유일 미군 포로 석방

오바마 - 탈레반 맞교환 협상 타결… 5년 만에 풀려나

미국 정부와 탈레반이 수년째 이끌어온 포로 맞교환 협상이 타결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반군 탈레반에 억류돼 있던 유일한 미군 포로인 보 버그달(28·작은 사진) 병장이 5년 만에 석방됐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은 대신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수감 중이던 탈레반 지도자 5명을 풀어줬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버그달 병장은 미군 특수부대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전장에 어떤 병사도 남겨두고 나오지 않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버그달은 2009년 6월 30일 아프간 남동부 지역에서 실종됐다. 그는 미국이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래 현재까지 남아 있던 유일한 미군 포로다. 그동안 파키스탄에 억류돼 있었다. 버그달은 실종 1년반이 지난 2011년 12월 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생존 사실을 알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보 버그달 병장이 5년 만에 석방됐다고 밝혔다. 옆에 함께 선 사람들은 버그달 병장의 부모다. /AP 연합뉴스

미 정부 관계자는 버그달의 신병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특수부대에 인도됐으며 그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번 맞교환은 카타르를 중재자로 한 비밀 협상이 효과를 발휘,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버그달의 석방을 확인한 뒤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돼 있던 탈레반 간부 5명을 풀어줄 것을 지시했다. 미국 정부는 일단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 측에 탈레반 수감자들을 넘겼다.

탈레반 정부 시절 정보차관이었던 압둘 하크 와시크, 전 육군 최고 사령관 무함마드 파즐, 아프간 북부 지역에서 주지사를 지낸 물라 누룰라 누리, 전 내무장관으로 재직한 카이룰라 카이르크 등이 이번 맞교환을 통해 석방됐다.

이날 탈레반은 성명을 통해 "큰 행복이자 기쁨"이라며 지도부의 석방을 축하했다. 그러나 미 공화당은 포로 교환이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테러리스트들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30일 전에 의회에 알리도록 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이번 임무는 "법률이 정한 … 긴급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탄소규제 천식환자 10만명 줄인다"

오바마, 라디오 연설 – EPA 배출 규제안 발표 예정

"미국이 탄소 배출을 규제할 경우 매년 10만 여명의 천식 환자를 줄일 수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면서 탄소와 스모그 등의 배출 감소 권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조만간 발전소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규제안이 시행되면 첫해에만 천식 환자 10만 명과 심장마비 환자 2100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환경 규제 강화가 기업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규제를 통해) 공기가 깨끗해졌고 산성비가 크게 줄었지만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플라스틱에서 발암물질을, 자동차 연료에서 납을 규제했을 때 미국의 과학자들은 더 좋은 대체품을 만들어 냈다"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반품 요청에 수의·위패 보내

metro Hongkong

인터넷 쇼핑몰 업체 '보복'

重慶女網購退貨
賣方竟寄來壽衣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여성이 반품을 요청하자 업체 측에서 수의를 보내 보복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충칭시에 사는 펑(彭)모씨는 지난 3월 19일 중국 최대 인터넷 오픈마켓인 타오바오왕의 '마나하시오제'라는 업체에서 200위안(약 3만3000원)짜리 치마를 샀다.

4월 21일 치마가 도착했지만 단추 두 개에 금이 가 있어서 펑씨는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 업체는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고의로 단추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냐며 환불 거부 의사를 밝혔다.

펑씨와 판매 업체는 계속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펑씨는 4월 29일 타오바오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를 했다. 타오바오는 일단 이 거래를 정지시키고 조사에 들어갔다. 4월 30일 타오바오는 판매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후 펑씨는 영문 모를 발신자들로부터 하루에 20통 이상 전화를 받았다. 또 지난달 8일에는 허베이성 바오딩시에서 보내온 소포를 받았다. 소포를 열어본 그는 깜짝 놀랐다. 상자 안에 수의 한 벌과 위패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타오바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이 소포는 펑씨가 치마를 샀던 업체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펑씨는 이 일을 인터넷을 통해 알리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곧 이어 많은 게시판에 그의 개인정보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판매 업체의 보복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박하향 아로마로 발지압 하세요"

metro Russia

도심 이색 정원 눈길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에 잣, 아로마 등으로 만들어진 이색 발 지압 정원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곳은 모스크바 디자인 공장 '플라콘'이 주최한 '나는 가꾼다' 축제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발 지압 정원 조성을 기획한 예카테리나 나키티나는 "시 전역에 깔린 두꺼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벗어나 발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흔히 볼 수 있는 자갈이 아니라 나무 뿌리와 잣, 박하향이 나는 아로마 등 다양한 소재로 미니 정원을 꾸몄다"고 말했다. 이어 "모래시계를 연상시키는 삼각형의 정원 안에는 독특한 소재들로 가득하다"며 "자갈과 모래 등 기존에 익숙한 소재는 제외시켰기 때문에 독특하고 새로운 감각을 맨발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 지압을 본 한 시민은 "맨발로 딱딱한 나무 뿌리를 밟으려니 너무 아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평소 발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밟았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부드러운 양말과 신발을 벗고 맨발로 여러 가지 것들을 느껴보면 기분 전환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드미트리 셀리바노프 기자·정리=조선미기자

아이들 눈이 반짝이는 스마트 교실

한국MS "기술보다 선생님이 먼저"
31일 교육 포럼 다양한 사례 눈길

스마트 교육 시장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PC, 태블릿, 무선인터넷 등 IT기기 보급에만 그쳤던 관행에서 벗어나 선생님과 학생이 스마트 교육을 주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덕분이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학생들이 듣는 기존 교실과는 달리 학생들이 IT기기를 활용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소통하는 공간은 '미래교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MS 네트워크 2014 코리아 포럼'을 진행했다. '선생님이 먼저'라는 MS의 교육철학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1000명이 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모여 스마트 교육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전 세계 교육자들이 모이는 'MS 2012 프라하 글로벌 포럼'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스마트 교육에 대한 뜻을 펼치기 위해 규모가 작은 학교로 옮긴 광주 극락초등학교 김광 선생님의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다.

QR코드를 이용해 박물관에서 유물을 찾고 있는 광주 극락초등학교 학생들

김 선생님은 "예를 들어 구석기 시대를 배울 때는 실제로 운동장에서 굽은 괴워 소세지를 구워먹고 QR코드와 인터넷 지도를 이용해 박물관을 찾아가 확인한다"며 "지식과 경험이 더해져 지혜로 체득될 수 있는 이같은 교육 방식 덕분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독서지도를 한 서울동일초등학교,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두(Kodu)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게임을 만든 부산 광안초등학교의 사례도 호평을 받았다.

서은아 한국MS 부장은 "IT기술에 교육이 종속돼 21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이 19세기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형적인 행태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비싼 장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먼저 스마트하게 변하면 학생들이 교실을 사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인텔코리아, 교육용 태블릿 공개

인텔코리아도 최근 교육용 태블릿과 소프트웨어를 선보이며 미래 교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인텔이 공개한 교육용 태블릿은 과학탐구용 내장형 렌즈 카메라, 영상편집용 미디어 카메라, 디지털 미술품 창작용 아트레이지,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 스파크뷰 등을 갖추고 있다.

이희성 인텔코리아 대표는 "2002년부터 약 10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미래로 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며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이번 태블릿에 모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재영기자 ljy.ee@metroseoul.co.kr

미술관(갤러리아)+숲(포레) 이었구나!
아파트 브랜드 전성시대 - 최고급 주택도 합류

아파트 브랜드가 대중화되면서 수십억이 훌쩍 뛰어넘는 최고급 주택도 브랜드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와 차별성으로 입주민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VIP 수요층을 겨냥하겠다는 의도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갤러리아 포레(Galleria Foret)'는 '갤러리(미술관)'와 불어로 숲을 의미하는 '포레'를 합성해 만든 브랜드다.

이름에 걸맞게 1층 상가에 '아틀리에 아키'라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특별전시관에서 일본서도 큰 인기를 누린 체험형 아트전 '빛의 정원'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화건설은 '꿈에그린'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최고급 주상복합이라는 상징과 서울숲과 아파트 로비가 바로 이어지는 입지를 감안해 '갤러리아 포레'라는 새 브랜드를 적용했다.

SK건설은 아파트에는 'VIEW(뷰)'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으나 고급 타운하우스에는 '아펠바움'을 사용한다. 독일어로 최고의 이상향을 뜻하는 아펠(APEL, Apel Elysium)과 자연을 뜻하는 바움(Baum)의 합성어로 '자연 친화적인 최고의 이상향'이라는 의미를 이름에 담았다.

아펠바움은 방배, 판교, 논현 등 서울 도심 외에도 판교, 용인 동백 등 자연친화적 환경을 자랑하는 입지에 많이 지어졌다.

현대건설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 브랜드 '하이페리온'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태양신을 의미한다. 그리스어로 '높은 곳을 달리는 자' 또는 '높은 곳에 있는 자'라는 뜻이다.

기존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다 이미지를 위해 이름을 바꾼 단지들도 있다. GS건설이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공급한 '메세나폴리스'는 2008년 '서교 자이 웨스트밸리'라는 이름으로 분양됐던 곳이다.

그러나 주 타깃인 VIP 수요자를 위해 '자이'와 차별화된 브랜드를 만들었다. 메세나폴리스는 문화, 예술 등을 지원하는 기업 활동을 의미하는 '메세나'와 그리스 고대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의 합성어다.

대림산업이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힐스(ACROHILLS)논현'도 논현경복 e편한세상'이라는 이름에서 변경된 경우다. 아크로(ACRO)는 대림산업의 고급 주거시설에 사용하는 브랜드명으로 '가장 높은, 넓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박선옥기자 psso@[illegible]

휴플러스, 3만원 대 리모콘 선풍기 1일 서울 휴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3만9900원짜리 유파 리모컨 선풍기를 선보이고 있다. 5엽 날개로 구성됐고 7시간 타이머 등 전 기능 리모컨 조절이 가능하다. /휴플러스 제공

'레노버에 넘어간' 모토로라의 굴욕
고 비용 미 스마트폰 공장 폐쇄 결정

한때 휴대전화의 대명사였던 모토로라의 굴욕이 이어지고 있다. 구글 자회사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한다.

1일(한국시간) 모토로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안에 텍사스 북부 포트워스 외곽에 있는 생산시설을 폐쇄하고 이 곳 생산 물량을 브라질과 중국 공장으로 돌리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가동에 들어간 이 시설은 미국 최초의 스마트폰 조립 공장으로 모토로라의 최고가 제품인 '모토 엑스'를 생산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공급했다.

하지만 제품 판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공장 가동 비용도 너무 높아 결국 1년만에 폐쇄키로 결정했다.

텍사스 공장 폐쇄는 구글이 모토로라를 중국의 전자제품 업체 레노버에 매각키로 한 것과 관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성훈기자 [illegible]

market index <30일>

코스피	코스닥
1984.91	548.53
(-17.30)	(-3.08)

금리	환율
2.62	1020.35
(+0.01)	(+2.80)

뉴스&뉴스

LG, 채용포털 '커리어스' 오픈

● LG는 1일 계열사의 채용공고부터 입사지원서 작성, 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가능한 통합 채용포털 'LG 커리어스 (http://careers.lg.com)'를 오픈했다.

현재 LG는 계열사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공고를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해 왔다. 반면 'LG 커리어스'에서는 인사담당자와 입사 선배들의 조언 및 인사제도, 직무정보 등 다양한 입사지원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특히 LG는 이번 통합 채용포털 오픈과 함께 지원자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은 줄이기 위해 채용 시스템을 변화시켰다. /김태균기자

개인정보 삭제 1만2000건 요청

●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네티즌의 열망은 생각보다 컸다.

구글이 유럽에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만2000건의 신청이 쏟아졌다고 AFP통신 등 유럽 언론들이 1일(한국시간) 전했다.

구글 측은 접수된 신청을 개별 분석해 삭제 가능 조건에 맞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illegible]기자

로또복권 제[illegible]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5	11	14	27	29	36	44

등위	당첨요령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061,792,725
2등	5개 숫자+2등보너스 숫자	54,087,728
3등	5개 숫자 일치	1,483,176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진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5811
[illegible]

여름철 음식물 관리 이렇게!

짠순이 주부 경제학 감자 옆에 사과두면 오래 보관

어느새 여름의 기운이 넘쳐난다. 날씨가 더워지면, 가정의 밥상을 책임지는 주부들은 음식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해 자칫 방심하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다.

우선 채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다. 특히 감자는 음지에서 보관해 싹이 나기 전에 먹어야 한다. 감자가 녹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난걸 먹게 되면 식중독에 노출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조리를 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반드시 깨끗하게 잘라서 먹어야 한다.

여기서 팁 하나! 감자를 보관할 때 사과 한 두개를 같이 넣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는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감자의 싹 발아를 늦출 수 있다고 한다. 반면 양파는 감자와 함께 보관하면 둘 다 빨리 상하게 되므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채소와 과일은 물에 씻어 보관하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씻지 않고 넣는 것이 좋다. 또 검정 비닐봉지 대신 투명 비닐에 담아서 보관해야 내용물 확인이 쉽다.

냉동했던 고기를 녹인 뒤 다시 얼리는 경우가 있는데, 위험한 보관법이다. 얼린 고기가 녹으면 해동되는 동안 고기 안에 있는 육즙도 녹아버리게 된다. 더욱이 육즙이 없으면 부피가 팽창하고, 그 과정에서 세균이 번식될 수 있다. 녹였던 고기를 다시 얼리면 맛도 없어진다. 냉동된 고기를 상온에 10분 이상 두었다면 냉동실에 다시 안 넣는 게 좋다.

냉동이라고 해도 보관기간은 길게는 2개월 정도까지가 좋다. 냉동실 온도는 영하 15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생선은 오일을 바른 랩으로 싸서 지퍼백에 진공 포장하는 것이 좋다. 보관 전에 내장은 제거하고, 아가미 부분을 세심하게 씻는 것이 중요하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음식은 최대 3일 안에 소리해 먹어야 한다. 재료들을 각각의 용기에 담아서 따로 보관을 해주는 게 좋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으면 냉장고 온도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음식이 상할 수 있다. 더불어 냉장고 안을 항상 정결하게 해둬야 음식 보관도 오래할 수 있다. 청결한 냉장고를 위해서는 최소 2~3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야한다.

/정민지기자 mjkoo@

중저가 의류잡화 관련주 '강세'

마이클코어스 두 배 '껑충' · 자라 OEM 한세실업 연초 대비 30%↑

소비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중저가 의류잡화 브랜드의 실적과 주가가 동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경기 침체로 고가의 명품 제품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중저가 고급 브랜드에 관심을 두는 소비자가 늘었다. 제작과 유통을 일괄 처리해 가격을 대폭 낮춘 저가의 SPA 브랜드들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클코어스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마이클코어스의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최근 2년새 두 배 넘게 치솟았다. 지난 2012년 5월 30일 40달러이던 주가가 지난달 30일 94.38달러로 상승하며 1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회사의 실적 역시 견조해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9% 늘고 매출도 54% 증가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마이클코어스의 인기 배경으로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꼽았다.

김미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명품 시장에서 합리적 소비가 나타나면서 30만원 전후반대의 여성 가방으로 유명한 마이클코어스가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명품 브랜드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간 것이 유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쟁업체인 코치나 명품 업체들인 페라가모와 프라다, 에르메스 등의 주가는 약세를 나타냈다.

올 들어 지난 5월 초까지 마이클코어스가 17% 오른 반면, 페라가모는 17% 하락했고 프라다와 에르메스도 각각 9%, 4% 떨어졌다.

연초 대비 주가가 오른 명품 업체는 마이클코어스 외에 루이비통(6%) 정도에 그쳤다.

코치는 2012년 3월 말 79달러 수준까지 올랐으나 지난 달 말에는 40 달러까지 주가가 추락했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다. '패스트패션'으로 불리는 글로벌 SPA 브랜드에 의류를 공급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업체들이 수혜주로 떠올랐다.

자라·H&M·유니클로 등 글로벌 3대 SPA 브랜드에 납품하는 한세실업은 올 들어 주가가 30% 넘게 올랐다. 이들 세 SPA 브랜드의 지난해 국내 합산 매출액은 1조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세를 탔다.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와 스포츠의류 생산·수출 업체인 영원무역도 지난해 말 4만2000원대에서 최근 4만5000원대로 지속적인 상승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서 이런 추세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미연 연구원은 "주로 20~30대가 합리적 소비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 관점에서 제품의 품질 대비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인식되는 브랜드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신하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제스처로 스마트 시계 움직인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진이 1일 손가락과 팔의 움직임을 이용해 스마트 시계 등 웨어러블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웨어러블 제스처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5만원 이상 카드결제 문자 무료

카드사 이달 중 시행… 부정 사용 줄어들 듯

이달부터 5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 문자 알림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지도로 이달 중 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이 5만원 이상 거래 시 휴대전화 문자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서비스 신청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카드 소지자는 해당 카드사 콜센터 등에 전화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신한카드는 9일 오전 9시부터 알림서비스를 신청받는다. 은행 지점이나 영업점, 콜센터(1544-7000)에 신청할 수 있으며 23일부터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별도 이용 수수료 없이 승인액, 시간, 장소 등을 고객 휴대전화로 알려준다. 단 법인카드와 신한BC카드는 제외된다.

삼성카드도 국내외 5만원 이상 승인 또는 취소건을 무료로 휴대전화 메시지로 알려주는 부정사용 방지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부터 관련 서비스는 시작됐으며, 이달 중 본격화할 계획이다. 삼성카드 고객은 대표전화(1588-8700)로 신청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나SK카드도 지난달 31일부터 거래금액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센터(1599-1155)로 전화 신청하거나 하나은행에 방문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 역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 시 무료 문자 알림서비스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카드사는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현대카드, 우리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도 이 제도에 동참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문자 알림서비스의 무료 이용이 확대되면 카드 부정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문자가 전송되면 즉시 확인해 결제를 취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llegible]기자

금융권은 지금 '칼바람'

우리아비바생명·씨티은행 등 희망퇴직
노조 "사측의 일방적 발표" 반발 예고

금융회사 실적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금융권 곳곳에서 인력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생명과 합병을 앞둔 우리아비바생명은 11일까지 전체 인력(340여명)의 30% 선에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근속연수 15년차 이상의 직원에게 18개월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5년차 이상은 12개월치, 5년차 미만은 2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합병을 앞둔 농협생명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최근 악화된 경영 실적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이 12일 농협의 우리투자증권·우리아비바생명·우리금융저축은행 인수합병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아비바생명은 늦어도 11일까지는 희망퇴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우리아비바생명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희망퇴직 제안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며 "노조 총회와 직원 결의대회에서 희망퇴직 전반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씨티은행도 최대 60개월 급여 지급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자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측은 최근 희망퇴직 방안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24~36개월치 평균 임금과 근속기간에 따라 추가특별퇴직금 명목으로 12~24개월의 평균 임금을 더해 최대 60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학자금 명목으로 퇴직 신청자 자녀 한 명당 1000만원씩,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조건을 덧붙여 노조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노조는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라며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은행에서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 받는다고 발표했다"며 "노사 합의 없이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고,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우리투자증권은 NH농협증권과의 합병을 앞두고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41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조만간 임원들의 인력 조정도 할 전망이다.

집행임원들은 직원 구조조정에 앞서 일괄 사표를 냈다. 우리투자증권과 합병하는 NH농협증권은 196명의 희망퇴직 명단을 결정했다. 이는 전체 직원 858명의 23% 수준이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유럽서 극찬받은 세탁기 상륙 1일 모델들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생활가전동 프리미엄 하우스에서 10kg 용량의 프리미엄 삼성 세탁기 WW9000 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IT펀드 수익률 '방긋'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전자 등 IT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IT펀드 수익률도 호조를 나타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월 삼성전자의 주가는 134만6000원에서 144만3000원으로 한 달 새 7.2%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장중에는 148만2000원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5월 한 달간 주가가 8.6% 올랐으며, LG전자 역시 6만9900원에서 7만2900원으로 4.3% 증가했다.

지난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 3개 종목의 시가총액 증가분은 17조3245억원에 달한다.

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IT업종의 대형주들이 힘을 내자 IT펀드의 수익률도 호조를 나타냈다.

지난달 30일 기준 에프앤가이드가 IT펀드로 분류한 10개 펀드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연초 이후에는 6.31%, 3개월 성과는 4.83%로 나타났다.

개별 상품별로는 연초 이후 수익률 기준으로 상장주식펀드(ETF)인 삼성KODEX반도체ETF(9.92%)와 미래에셋TIGER반도체ETF(9.82%)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액티브 펀드 상품 중에서는 '하나UBS IT코리아증권투자신탁I(주식형-클래스A)'의 수익률이 5.36%으로 가장 우수했다. /이재현기자

임대주택 정보 포털 구축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쉽게 빈집을 찾을 수 있는 임대주택 정보 포털사이트가 연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전국에 있는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의 위치와 종류, 면적(평형), 임대료 등 정보를 한 데 모은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임대주택을 빌려주려는 사람(임대인)과 빌리려는 사람(임차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구실을 하게 된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들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들 공사가 내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고 수요자가 신청을 해야 했다.

특히 5년 매입임대주택이나 10년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없어 공인중개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임대주택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요자가 전국 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다. 수요자는 임대료나 면적, 위치, 유형 등 자신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을 찾아 계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제출받아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운영 중인 LH에 사이트 운영을 위탁할 방침이다. /이재현기자

초역세권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상가 분양

대한민국 최고 상권으로 꼽히는 강남역 초역세권에서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스트리트형 상가가 분양된다. 최근 스트리트형 상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걸음 따라 들어서는 스트리트형 상가는 개방감이 높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들어서기 때문에 고객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강남역 센트럴애비뉴는 최근 5년간 공급된 오피스텔 중 가장 큰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단지 내 상가로 지하 2층~지상 3층에 입점한다. 728실에 달하는 입주민 고정수요는 물론 2만여 명의 상주인구와 주말 최대 35만~40만 명의 유동인구를 갖고 있다.

강남역 센트럴애비뉴 투시도

상가는 연면적 1만3000여㎡ 규모로 점포수만 110개다. 일대 상업시설 중 점포수 기준으로 최대다.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사선형 도로를 통해 전 매장이 전면도로에 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화 설계됐으며 상가의 4면이 모두 도로와 접한다. 특히 테헤란로에 한면이 노출되는 입지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또 백화점, 대형쇼핑몰 등에 적용되는 공간구조분석 스페이스 신택스(Space Syntax)기법을 토대로 강남역에서 테헤란로로 이동하는 인구가 자연스럽게 상가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동선을 구성했다. 지하 2층은 강남역 1번 출구와 바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트가 설치됐다.

분양사무실은 강남역 7번 출구 앞에 있고 2015년 3월 입점 예정이다. 문의(02)583-3880

/박선옥기자 [illegible]

티몬 '한국의 아마존' 변신

수익보다 투자 늘려 지배력 키울 것
상품수·가격·배달 기본다지기 강화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티몬이 '한국의 아마존'으로 거듭난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군림하고 있는 아마존의 장점을 한국의 시장 상황에 맞춰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신현성 티몬 창업자 겸 CEO는 지난달 29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창립 4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향후 전략을 발표하면서 아마존을 수차례 언급했다.

신 대표는 먼저 수익보다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강조했다. 수익 향상은 투자를 줄이면 가능하지만 그 순간 점유율도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수익도 감소한다는 논리다.

신 대표는 "수익률을 높이는 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성장동력이 떨어진다"며 "아마존의 낮은 수익률이 우리의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광고 부문이 아닌 인터넷쇼핑에서 5% 미만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경쟁업체인 중국의 알리바바 등에 견줘 4~5배 작은 규모다.

반면 아마존의 매출은 지난해 기준 알리바바보다 6배나 많다. 철저히 '박리다매'를 추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마진을 높이기는 쉽다. 하지만 그 이후 큰 파이를 놓고 경쟁자와 싸우는 일은 너무 힘들다. 몫이 작아도 경쟁이 덜 한 게 낫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현성 티몬 대표가 아마존을 예로 들어 향후 전략을 밝히고 있다. /티몬 제공

아울러 신대표는 소비자가 자주 찾는 상품을 직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간 단계를 최대한 줄여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으로 이 또한 아마존의 전매특허라 할 수 있다.

신대표는 "온라인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 수백억원 단위의 상품을 직매입할 예정이다. 회전율 높은 상품이 대상인 만큼 재고 부담이 없고 글로벌 소싱 확대와 직구(해외직접구매) 관련 파트너 확보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전했다.

티몬이 최근 오픈한 지역배달 서비스도 같은 맥락이다. BBQ, 놀부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와 같은 배달앱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대표는 아마존이 창립 이래 15년 이상 1위를 놓지 않은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살거리가 많고 가격이 싸고 배송이 빠르다. 아마존은 이 세가지에만 신경썼는데 여전히 업계 리더다. 티몬 역시 이 세가지 기본에 충실해 국내 경쟁 브랜드는 물론이고 한국 상륙이 임박한 아마존, 알리바바와도 당당히 맞서겠다."

/서귀포=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한식 기내식 홍보 대한항공은 1일 중국 베이징 예술특구 내 전시관에서 열린 '베이징 한국문화관광대전' 박람회에서 비빔밥과 불고기 덮밥 등의 한식 기내식을 선보였다. /대한항공 제공

거꾸로 가는 규제정책 비판

재계 "온실가스 배출권 재검토" 촉구

재계가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철폐를 요구하는 마당에 환경부가 기존 규제에 새로운 규제를 더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7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지의 배출허용총량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각 사업지는 잉여·부족분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도다.

재계는 이에 대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부담을 줘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우선 환경부의 할당계획(안)이 지난 2009년 과소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할당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실적은 2012년 2800만톤 CO_2가 초과돼 실제 산업계 배출량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0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계에서 분석한 결과, 2020년 배출전망치(BAU)는 8억9900만톤 CO_2로 정부 예측치 8억1300만톤 CO_2보다 10%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 할당량 산정시에 과거 3개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해 실제 신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발전·철강·석유화학 등 17개 주요업종의 예상배출량에서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한 요구량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할당계획(안)상의 할당량 간 차이는 2억6000만톤 CO_2로 업계 요구량보다 16%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2010년 EU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재계는 최소 6조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없기 때문에 실제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하면 추가 부담액은 28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계는 "산업계는 에너지절감투자,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성실한 준수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실과 동떨어진 배출권 할당계획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제균기자 kasa@

미 법학 교수 27명 삼성전자 지지

"애플 주장은 130년 전 사고방식" 선언

미국 법학 교수들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1일(한국시간) 마크 렘리 스탠퍼드대 교수를 비롯한 법학 교수 27명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법정의견서에서 애플과 삼성전자의 1차 소송 디자인 특허 문제에 대해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학 교수 27명 중에는 같은 소송에서 표준특허 문제와 관련해서는 애플을 지지했던 교수도 3명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디자인을 전공한 교수도 포함됐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때 이익 전부를 환수하는 법률은 1887년에 제정된 것인데 당시 입법자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복합적인 제품이 아니라 카펫과 같은 단순한 제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이들 법학자의 주장이다.

/이상훈기자

실수로 타인계좌 이체 대처법은?

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계좌소유주에 반환 요구…돈 쓰면 횡령죄로 소송 가능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금융 이야기' 이번 주에는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송금했을 때의 대처법 등을 알아봅니다

민원인 1 B씨의 계좌로 송금하려고 ATM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다가 실수로 C라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금감원 은행은 단순 중개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민원인은 은행을 상대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 C는 입금된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민원인에게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의로 돈을 써 쓰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 C의 동의를 받고 협조를 통해 임의반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수취인 C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C가 임의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원인은 부당이득반환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며 은행이 아닌 수취인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판결)

민원인 2 B씨의 명의로 C은행에 입금한 돈을 나중에 찾기로 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는 B가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금이 되자 B가 임의로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본인이 입금한 예금을 인출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C은행에 지급정지요청을 했으나 C은행은 본인이 예금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틈을 타 B는 본인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가버렸습니다

이에 C은행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금감원 C은행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이 A와 B간 내부적 법률관계를 알았더라도 예금명의자를 일단 예금주라고 전제하고 예금거래를 처리하게 됩니다

예외로 해당되는 경우는 C은행이 예금 명의자인 B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고 자금 출연자인 민원인과 계약을 맺어 민원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을 때입니다

은행거래 기본약관상 지급정지조치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C은행은 민원인의 지급정지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또 지급정지조치는 자칫 예금주 B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손해를 입게 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민원인이 요청했을 때 사실관계를 먼저 조사·확인할 때까지 이를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C은행에 대해 지급정지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3. 1. 25 선고 2012다25348판결)

문의: 금감원 금융감독정보(국번없이 1332)

/정리=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징검다리 연휴, 분양시장 '휴무'

6월 첫째 주 분양시장은 6·4지방선거와 현충일로 인한 징검다리 연휴의 영향으로 사실상 휴무 상태에 들어갈 전망이다

3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월 첫 주 전국적으로 청약접수 5곳, 당첨자 발표 14곳, 당첨자 계약 7곳, 견본주택 개관 1곳의 일정이 계획돼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2일 충북 제천시 강저지구 B1블록에서 '제천강저 2차 센트럴 코아루'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전용면적 71~84㎡, 전체 493가구 규모다

청풍호로, 화산로, 강저로, 제천역, 중앙고속도로 제천IC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이마트, 롯데마트, 제천시청, 제천종합운동장, 제천시립도서관, 제천서울병원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명지초, 제천중, 세한여고, 제천제일고, 제천고 등과도 인접해 있다

포스코건설은 3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 아산탕정지구 1-C3블록 '천안 불당 지웰 더샵' 1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전용면적 84~112㎡, 총 685가구로 구성된다

5일에는 서희건설이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일대 공급하는 '장한평역 서희스타힐스 리버파크'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19~21㎡로 이뤄진 소형 오피스텔로 총 416실 규모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피부미용 맡기세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미용기능경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부미용 부문에서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고 있다

/연합뉴스

'진술서 대행 서비스' 활용을

김현수 법무사의 개인회생 이야기

서초동 법원가의 한 사무장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자들을 위해 진술서를 써주는 사업을 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빚에 허덕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법원에 낼 서류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스스로 진술하도록 하고 있다

진술서의 내용은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지게 됐는지의 과정을 자세히 밝히고 가족관계나 직장, 사업 관계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판사들에게 새로운 생활자세와 각오를 말하면 된다

거기에 어떤 형식도 없다. 분량도 없다. 알아서 써내면 된다. 말하자면 일종의 자유주제에 따른 작문인 셈이다

그래서인지 글을 많이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곤혹스러워한다. A4 용지 한 장도 못 채운다. 우여곡절을 겪고 인생 사람은 파란만장한 생활고를 겪었으면서도 짧은 분량도 기술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법원에 내는 진술서에 잘 쓰고 못쓰고를 따질 수는 없다. 문장이 유려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기본요건은 맞아야 한다. 즉 법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면 된다

빚이 왜, 그리고 언제 많이 불어났는가를 설명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린 시절이나 집안 가족사를 길게 나열해봐야 소용이 없다.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취급받아 개인회생이나 파산 인가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은행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집을 비싸게 샀는데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집값이 크게 하락했다거나 사업을 벌이다 사기까지 당해 소송을 당했다는 등의 스토리를 그대로 진술하면 된다

<김현수 법무사 www.lawshelp.kr>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은 구분해야

금융가 사람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노진호 금융팀장

빅데이터 활용능력 원천 차단 안돼

올해 초 카드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잇따라 터진 일련의 금융사고에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는 저마다 정보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 이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하나로 몽뚱그려 무조건 꽁꽁 싸매기만 한다면 발전적인 정보의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노진호(사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보 산업화 시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의 보호와 보안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모든 정보를 통째로 묶어 이를 소수의 '보호'나 '보안' 관리자가 무한 책임을 지고 통제하도록 하면 비즈니스의 활력은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최근 발생한 고객정보의 불법 유출 사고 등은 변명의 여지 없이 금융회사 직원이지만 고객정보 유출을 빌미로 [illegible] 원하겠다는 식의 대응은 금융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정보 보안이 정보수집과 활용을 더욱 제한하는 대책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정보를 가공해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프로세스까지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는 "금융은 정보사업인데 정보(data)의 유통이 어려워지면 고급정보(information)의 생산도 제한돼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과 서민은 더 불리해질 수 있다"며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수집할 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민감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세분화하고 보호의 등급에 따라 정보관리 책임을 차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예컨대 정보의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위 '빅 데이터' 시대에는 '보호'와 '보안'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각각의 목표에 따라 정보 등급을 세분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금융 보안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관계자가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빅 데이터' 시대에는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 덕목"이라며 "기업의 국제경쟁력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빅 데이터'의 활용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채아란기자 [illegible]

동남아시아

- 푸껫 ★파통 특급리조트 — 5일
  299,000 ▸6월 11,13일
- 코타키나발루 ★일급호텔 — 5일/6일
  269,000 ▸6월 28일 299,000 ▸6월 25,26,29일
- 세부 ★일급호텔 — 5일
  299,000 ▸6월 9,10,17,22,24,26일
- 보라카이 ★라군리조트 디럭스룸 — 5일
  379,000 ▸6월 24일 429,000 ▸6월 21,28일
- 캄보디아(앙코르왓) — 5일
  549,000 ▸6월 21,22,23,26,29일

중국

- 홍콩 ★2층 오픈탑버스 — 4일
  379,000 ▸7월 1,2,6,7,8,9,13,14,15일
- 북경 ★발마사지+서커스+4대특식 — 4일
  189,000 ▸6월 17,20,22,24,25,29일/7월 2일
- 장사/장가계/원가계 — 6일
  549,000 ▸6월 23일 629,000 ▸6월 28,30일
- 삼청산/황산/무원 — 6일
  399,000 ▸6월 20,27일
- 백두산(서파)/고구려유적지/대련 — 5일
  499,000 ▸6월 17,20,23일

일본

- 규슈 — 4일
  599,000 ▸6월 10,16,17,24,30일
- 오사카(교토/나라/고베) — 3일/4일
  [3일] 449,000 ▸6월 11일
  [4일] 659,000 ▸6월 16,17,22,23,24,25,30일
- 북해도 ★도야 온천숙박 — 4일
  679,000 ▸6월 10,23일
- 도쿄(시즈오카/하코네) — 3일/4일
  [3일] 549,000 ▸7월 3,10일
  [4일] 699,000 ▸7월 2,9,13일
- 남큐슈 ★전일정 온천욕 — 3일
  399,000 ▸6월 25일

www.hanatourist.com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 1577-1212
강남점 1600-6963

역사는 되풀이 된다

뉴스룸에서
김 태 균
<경제 산업부장>

정부의 지지가 참으로 딱하다.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 딱하다 못해 안스러울 정도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 세월호 참사에 이은 각종 사고,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의 낙마 등 난마처럼 얽힌 각종 사슬은 아 정부는 해결할 능력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요즘 뜨고 있는 드라마 '정도전'에서 투영되는 고려 말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정치분야가 이런 정도이니 경제분야는 참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태가 이를 웅변한다. 현부총리는 지난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은 차분한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도 소비활동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로 내수가 어려우니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이 정도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 나라의 국민에게 '소비만이 미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이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2010년 OECD 주요 87개국 중 가장 높다. 이 중 이 금은행 대출의 67%가 주택담보대출이고, 60% 이상을 단기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가계저축률은 1988년 19%에서 2012년 4%로 급락했는데, 이는 OECD 중 최하위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조차 최근 기사에서 한국 경제구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재벌의 부채를 기반으로 한다"며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을 저지할 위험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또 지난 26일 제2차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펴나가고 민생경제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에도 경제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읍소했다.

이에 대해 재계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경제민주화, 오너에 대한 수사 등 정권 초반부터 재계를 압박해 온 현 정부가 이제 와서 곳간 문을 열라고 하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지금의 상황은 '한마디로 '문예부산'이다. 모기가 산을 등에 진다는 말로, 약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크고 중한 일을 맡았다는 의미다. 지금의 꼬인 상황을 풀기위한 대책을 마련조차 한다면 적확하게 하든가, 아니면 능력의 부족을 깨닫고 스스로의 거지를 선택해야 할 때다.

혁신적 인재기용 방식 보고싶다

정론탁설
유 병 팔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집권 15개월을 맞아 최대의 시련기를 맞고 있다. '4·16 참사'로 비롯된 총체적 국정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이미 국가개조수준의 개혁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개각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니 '안대희 카드'가 실패하자 박 대통령의 인재기용방식에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비서 측근 중심 인재풀로 아직도 종전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집권이후 만기친람(萬機親覽)이라고 할 만큼 대사를 직접 챙기려는 확장식 리더십이 한계에 달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어제 잔여 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만 집권 2기를 맞는다는 각오로 조각 수준의 개각에 아 휘게야 한다. 그러나 첫 단추인 총리마저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야할 국정의 목표와 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는데 실패했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인재의 기준을 철저히 설정하고 거기에 걸맞은 인물을 찾아야 마땅하다. 우선 도덕성에 흠이 없어야 한다. 다음으로 적재를 찾아 국민여론을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깜짝 인사'를 감행할 경우 백전백패다.

특히 지역과 당파나 출신을 떠나 국민적 인재풀을 운영해야 한다.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은 제3공화국 초대총리에 야당을 지지한 최두선 동아일보 사장을 기용한 전례가 있다. 여기에다 당동벌이(黨同伐異)의 한계를 벗어나 자신보다 더 출중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과감히 중용해야 국민에게 믿음이 가고 지도력을 격상시킬 수 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자신보다 잘함이 많다고 판단되면 어떤 방법이든 영입시켰다. 그래서 묘비명도 "자기보다 출중하고 덕이 높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곁에 모아둘 줄 아는 사람 여기 잠들다"로 되어 있다.

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세종대왕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사 정책을 펴 엄청난 인재를 배출했다. "인재가 길에 버려져 있는 것은 나라의 수치"라며 지역과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숨은 인재를 중용했다. 자신의 즉위를 반대해 귀양가있던 황희를 중용해 조선 최장수 청백리명재상으로 만들었다. 또 노비출신 장영실을 기용해 과학기술의 황금기를 열었다. 이제 박 대통령이 국가개조의 대명제를 좇아 반듯한 나라를 만들자면 인재기용에 마음의 문을 열고 혁신을 기해야 가능하다.

포토프리즘 '사전투표 참 편하네'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종로구청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 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투표소를 찾은 한 시민은 '선거 당일 투표를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참 편리한 제도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손진영기자 son@

'정신머리 없는 토니모리'

기자수첩
정 혜 인
<생활레저부 기자>

지난달 2일 토니모리 홈페이지에서 고객 개인정보 50만 건이 유출됐다. 이 회사는 9일이 돼서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피해 사실과 내용, 보상 방침을 포함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기자는 몇 차례에 걸쳐 토니모리 측에 앞으로 어떻게 보안 체계를 정비해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 문의를 했다. 하지만 이 회사로부터 답변을 듣기까지 한 달여를 보내야 됐다.

그나마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교체 작업을 진행 중이며 자세하게는 모른다'는 대답이 전부였다. 게다가 "이런 사실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공개적으로 설명할 계획도 없다"는 '나 몰라라' 식의 무성의가 전부였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발생 후 소비자는 해당 업체 측에 과실이 있었다고 규명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로 인해 유사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해당 업체들은 사과만 하면 모든 수습이 끝나는 것으로 치부하고 만다. 토니모리 측도 예외는 아니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토니모리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반면에 지난 4월 중순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스킨푸드 측은 유출 경위와 범위, 향후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의 있게 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소비자의 신뢰회복여부는 그 이후의 대처에 따라 극명히 다를 수 있다. 올바른 위기관리란 과연 어떤 것일까.

자식 농사

인문학 산책
김 만 웅
<성균관대 교수>

자식 가진 사람, 남의 자식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 해우점이다. 그만큼 자식 교육은 내놓고 자신할 수 없다. 그러니 부모의 교육관이 어떤가도 중대한 문제가 된다.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의 욕망이 관철되도록 하는 이만이 도제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계는 고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확실해 진 것은 인간다움을 기르는 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앞서야 한다는 각성이다. 전문적 능력이 아무리 우수해도 양심과 윤리, 인간다운 성정을 지나지 않으면 그러한 전문 능력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재력, 사회적 위치는 이들의 힘 없에 놓이게 되는 흉기로 작동할 뿐이기 때문이다.

교육이 흉기를 대량생산하는 현장이 된다면 그야말로 끔찍하다. 그래서 교육은 언제나 가치 논쟁을 그 중심에 세운다. 이념과 사상, 철학과 윤리에 대한 성찰과 논쟁은 결코 낡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미래 이기도 하다. 이념과 사상은 지난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갱투의 시대착오적 산물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이상향을 가는데 두고두고 필요한 디딤판이다. 철학과 윤리도 인간의 이성을 비판적으로 단련시켜 기만에 속지 않고 자신의 주체성을 세우는 정신적 능력이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는 인간에게 인간이 되도록 하는 핵심적 시건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언제나 이러한 고민을 담고 있어야 한다. 아니면 미래사회는 갈수록 잔혹해지고 욕망의 싸움터가 될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교육감 후보 가운데 두 사람의 딸 그리고 아들이 각기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쓴 글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고승덕 후보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식교육에 무책임한 사람이라 서울시 교육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조희연 후보의 아들은 인지도가 낮은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교육적 가치에 대해 주목해달라고 호소했다. 모두 다 용기 있고 감동적으로 잘 쓴 글이었다.

내용은 얼핏 대조적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 어떤 교육이 우리가 바라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을 뽑는 선거는 시장을 뽑는 선거에 비해 주목도가 떨어지지만, 그 질적 의미로 보자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자식농사는 결국 함께 해나가는 일이자, 미래사회를 향한 우리 모두의 선택이기도 하다.

지긋지긋한 허리·목 디스크, 진화된 고주파 치료로 10분이면 끝

기존 치료와 달리 근본적인 질환 치료로 회복 빨라
도수·감압·운동 치료 통해 환자 회복에 중점

유명 배우 S양의 아버지 S씨는 어느날 아침에 양말을 신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생기면서 오른쪽 다리 당김 및 통증이 발생해 집 근처 척추 전문병원을 찾았다.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S씨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했다. 하지만 S씨는 수술이 무섭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고자 S양과 같은 방송인 런닝맨에 출연 중인 방송인 G씨의 소개로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을 찾았다.

김상욱 강남조이스병원 홍대점 원장은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로 S씨를 진단하고 강남조이스병원에서 국내 유명 연예인들 및 세계인들이 주로 치료받았던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S씨는 치료 당일 통증이 호전돼 바로 퇴원했다.

또 최근 불후의 명곡 및 히든싱어 우승으로 화제가 된 보컬 가수 휘성은 군 복무 중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으로 제대 후 강남조이스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에서는 S씨와 마찬가지로 국소 마취하에서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 10여 분간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휘성은 치료 후 방송활동에 복귀했으며 현재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런닝맨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가수 김종국과 개리도 휘성과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다가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말끔히 해소돼 현재 무리 없이 방송활동을 소화하고 있다.

이처럼 3년전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강남조이스병원이 시행한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유명 연예인들과 세계인들이 치료받아 더욱이 알려졌다.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와는 다른 진화된 치료법으로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환자 맞춤형으로 질환 근본 치료

수많은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방문해 유명해진 강남조이스병원은 내원 환자의 증상·질환에 따라 척추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한다. 진단 후 초기 및 중기 디스크 환자에겐 아픈 부위에 간단히 신경 주사 치료를 한다. 또 증상이 심하거나 말기 디스크 환자는 강남조이스병원의 대표적인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는다.

이처럼 강남조이스병원은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나이·증상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병원은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척추 치료를 체계화했다.

더욱이 강남조이스 병원은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 잡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그리고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근육 인대를 강화하면서 척추를 안정시키는 운동치료로 환자의 회복을 돕고 있다.

강남조이스병원은 현재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근처의 본원 외에 여의도역, 홍대입구역 인근에 목·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 교정(턱자목·골반 불균형·휜 다리·측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 및 척추관절 비수술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문의 1600-3800

/황재용 기자

/강남조이스병원 제공

습윤 드레싱 '메디폼', 세계로 진출

먼디파마, 새로운 패키지 출시 · 한류스타 이승기 광고모델 기용

한국먼디파마(대표이사 이종호)가 1일 새로운 패키지의 '메디폼'을 출시하고 해외 진출을 본격 추진한다.

메디폼은 제네웰(대표이사 문병현)이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습윤 드레싱 제품으로 한국먼디파마는 지난 3월 제네웰과 아시아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내 라이선스 판매에 대한 전략적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또 한국먼디파마는 국내뿐 아니라 제품의 세계 출시를 염두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제품의 가독성을 높였으며 메디폼의 다양한 브랜드에 속한 제품 라인별로 각기 다른 색상을 적용했다. 더욱이 회사는 한류 스타인 이승기를 모델로 기용해 새로운 TV 광고도 선보인다.

먼디파마 동남아시아 및 한국 지역 총괄 사장인 이종호 대표이사는 "메디폼은 상처 치유 촉진 효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흉터 걱정 없이 상처를 치료하는데 기여해 왔다"며 "이번 패키지 리뉴얼은 메디폼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재단장으로 먼디파마는 메디폼을 전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재용기자 hanul38@metroseoul.co.kr

류마티스학회, 건강강좌 개최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고은미)가 오는 10월부터 전국 17개 대학 종합병원에서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강좌는 학회가 전개하는 '제5회 골드링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류마티스관절염의 올바른 치료 방법 및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운동법, 식이요법 등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달이 그 내용이다.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뿐 아니라 일반인, 환자 가족 등 류마티스관절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

고은미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은 "류마티스관절염은 평생 치료 및 관리를 위해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환자와 가족, 일반인들이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궁금증도 풀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대목동병원, '뇌졸중 적정성 평가' 최고 등급

5회 연속 '뇌졸중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명성 이어가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권)이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4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 평가를 받아 뇌졸중 치료 전국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종합병원 이상 20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이대목동병원은 종합 점수 100점 만점으로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됐다. 의료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기관에 부여하는 가산금까지 받았다.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는 외래진료 뿐만 아니라 응급실과 뇌졸중 집중 치료실, 혈관 시술팀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한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ESC(Ewha Stroke Code) 시스템을 구축해 365일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특정 질환(암, 심부전,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에 대한 진료 프로그램과 환자의 치료 결과에 대한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인 JCI CCPC에서 뇌졸중 진료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공간 활용의 개념을 바꿨다

임의택의 차 차 차

■시트로엥 그랜드 C4 피카소

나들이가 늘어나는 요즘에는 미니밴과 SUV가 인기다. 가족과 함께 탈 수 있는 넓은 실내공간과 큰 적재공간은 이들 차종의 가장 큰 매력이다.

시트로엥이 지난 3월부터 시판하는 그랜드 C4 피카소도 바로 그런 차다. 차체 길이는 4595mm로 기아 카렌스(4525mm)보다는 길고, 카니발(5115mm)보다는 훨씬 짧다. 차체 높이도 카렌스보다 약간 높고 카니발보다는 낮다. 우리가 흔히 보던 미니밴보다는 작지만 미니밴의 스타일을 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차다.

앞모습은 콘셉트카의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LED 주간 주행등을 위에 배치하고 헤드램프를 그 아래에 놓음으로써 일반적인 상식을 깬다. 실내 역시 독특하다. 운전석에 앉으면 앞 유리가 유난히 넓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앞좌석 승객 머리 위까지 이어진 앞 유리 때문이다. 선바이저를 위로 당기면 시야가 훨씬 넓어진다. 시트로엥 DS 라인에서 봤던 독특한 구조다.

계기판은 대시보드 가운데에 배치됐고 12인치 파노라마 스크린으로 표시된다. 넓은 화면은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배경화면을 설정할 수 있고, 계기판 형태를 3가지로 바꿀 수도 있다. 그 아래에 7인치 터치스크린으로 공조장치나 오디오 장치 등을 조작하도록 했다. 블루투스 기능은 신통치 않았다. 핸드폰과 연결을 수차례 시도했으니 실패했다는 메시지만 반복됐다.

스티어링 칼럼에 달린 기어 레버는 조작감이 낯설지만 금방 익숙해진다. 최고출력 150마력의 2.0ℓ 디젤 엔진은 부드러우면서도 넉넉한 파워를 낸다. 6단 자동변속기의 연결감도 훌륭하다. 차체가 승용차보다 훨씬 높지만 고속주행에서도 꽤 안정된 감각을 보여준다.

3개로 나뉜 2열 시트도 다른 차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다. 앞뒤 조절이나 등받이 각도가 3개 모두 따로 움직이므로 승차인원에 따라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3열 시트는 접어서 바닥으로 숨길 수도 있다. 2·3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상당히 넓은 적재공간이 나온다.

그랜드 C4 피카소의 표시연비는 도심 13.0km/ℓ, 고속도로 15.6km/ℓ이고, 이번 시승에서는 11.0km/ℓ를 기록했다. 가솔린 엔진을 얹은 경쟁 수입 미니밴들과 달리 디젤 엔진을 얹은 그랜드 C4 피카소의 강점이 여기서 드러난다. 값은 4290만~4690만원으로 다른 수입 미니밴에 비해 저렴하다.

/임의택기자 ferrari@metroseoul.co.kr

▲한결 [illegible] 다채한 공간 활용이 돋보인다. ▲판칙 ★★★★ [illegible]

한국GM '트랜스포머 시사회' 1000명 초대

쉐보레가 6월 영화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의 전 세계 동시 개봉에 앞서 영화에 출연한 쉐보레 모델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2014 부산모터쇼에서 카마로 콘셉트카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 쉐보레는 1일부터 19일까지 홈페이지(www.chevrolet.co.kr) 내 트랜스포머 온라인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총 1000명을 선정, 오는 24일 영등포 타임스퀘어 CGV에서 열리는 영화 특별 시사회에 초대한다.

더불어 이번 영화에 출연한 쉐보레 카마로, 말리부, 트랙스 차량과 대형 오토봇을 타임스퀘어 내 트랜스포머 존에 전시하고, 현장 이벤트를 통해 완전히 새로워진 트랜스포머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응모 고객 중 총 240명을 선발, 영등포 타임스퀘어 CGV에서 26일 저녁 트랜스포머 영화 관람에 이어 27일 새벽에 열리는 대한민국 대 벨기에 경기 응원전을 펼친다.

또한 6월 한 달 간 한국 쉐보레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8000명에게 트랜스포머 영화 관람 티켓과 특별 기념품을 제공한다.

쉐보레는 '파워 오브 플레이'를 주제로 다양한 스포츠 마케팅을 펼친다.

5월 한 달 간 홈페이지 응모를 통해 선정된 한 가족에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 팀 경기 관람을 포함, 4박 6일간의 여행 패키지를 제공한다. /임의택기자

<국산차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기아	올뉴모닝			810	830	920
쉐보레	스파크	-	-	740	830	870
	라세티	800	920	1 000	1 080	-
현대	아반떼HD	820	830	-	-	-
쉐보레	말리부	-	-	-	1 960	2 090
기아	K5		1 530	1 540	1 710	1 790
쉐보레	윈스톰	1 190	1 220	-		
	올란도	-	-	1 580	1 610	1 850
현대	투싼ix	1 560	1 610	1 700	1 850	-
BMW	뉴3시리즈	-	-	-	3 800	3 920
아우디	뉴A4	2 430	2 600	2 910	3 200	3 15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부산 모터쇼, 하반기 주목할 신차는?

지난달 30일 일반에 공개된 부산모터쇼는 다양한 신차를 미리 만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시판될 신차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시장판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드는 하반기 전략차종으로 링컨 MKC를 내세웠다. 링컨 최초의 콤팩트 SUV인 이 차는 2.3 에코부스트 엔진을 얹고 최고출력 288마력을, 2.0 에코부스트 엔진으로 최고출력 243마력을 내는 두 가지 모델이 선보인다. MKZ에서 선보인 버튼식 변속 시스템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도 돋보인다.

메르세데스 벤츠 GLA와 뉴 C클래스도 관심을 받고 있다. GLA는 도심과 오프로드 주행을 모두 염두에 둔 콤팩트 SUV로, BMW X1의 라이벌이다. 구체적인 제원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엔진 라인업은 CLA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중순에 공식 출시되는 뉴 C클래스는 2007년 4세대 모델 이후 7년 만에 풀 체인지 된 5세대 모델이다. 국내에는 가솔린 모델인 뉴 C 200과 뉴 C 200 아방가르드, 디젤 모델인 뉴 C 220 블루텍 아방가르드, 뉴 C 220 블루텍 익스클루시브 등 총 4개의 라인업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4860만~5800만원이다.

렉서스는 RC F를 11월에 내놓을 예정이다. 뉴 IS의 레이싱 쿠페 버전인 이 차는 450마력의 V8 5.0ℓ 엔진이 장착됐다. 탄소섬유 소재와 액티브 리어 윙 등을 사용해 고속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킨 게 특징. BMW M3, 아우디 RS5가 경쟁차종이다.

닛산 캐시카이는 르노삼성 QM5 후속모델과 쌍둥이 모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닛산 최초로 디젤 엔진을 얹어 유럽선 디젤차에 맞설 기대주로 꼽힌다. 역시 구체적인 제원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고 하반기에 시판될 예정이다.

캐딜락은 6월 중에 올 뉴 CTS 시판에 나선다. 2.0 276마력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은 이 차는 2002년 첫 등장 이후 3세대로 진화한 모델이다. 알루미늄 도어를 사용해 구형보다 130kg 이상 가볍게 만들었고, 12.3인치 풀 컬러 클러스터를 장착했다.

재규어 F타입 쿠페는 컨버터블에 없던 고성능 R 모델이 추가돼 F타입 쿠페, F타입 S 쿠페, F타입 R 쿠페 등 총 세 가지 라인업으로 6월에 출시된다. 최상위 모델인 R 쿠페는 V8 5.0ℓ 슈퍼차저 엔진을 얹고 최고출력 550마력, 최대토크 67.4kg·m를 뿜어낸다. /임의택기자

렉서스 RC F

유통업계 웃음 마케팅… '반전 모델' 열풍

의외의 즐거움 선사 제품 이미지 각인

최근 웃을 일 없었던 소비자들에게 재미요소가 더해진 유통업계의 광고와 마케팅이 인기다. 잘 생기고 예쁜 유명 연예인을 기용한 광고보다는 의외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캐릭터를 선호하는 추세다. 웃음 코드를 활용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이미지를 보다 긍정적이고 강렬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보해양조의 신제품 '아홉시반'은 지난 19일 주류업계 최초로 소주 대학을 설립해 화제다. 이른바 '아홉시반 주(酒)립대학'. 아홉시반과 연계해 젊은 소비자들과의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만든 캠페인성의 가상 대학이다. 연예계 대표 주당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제동이 아홉시반 주립대학의 총장으로 발탁돼 모델로 나섰다. 김제동은 '섹시 혹은 청순한 여성 모델'이라는 소주 모델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깬 남성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보해양조는 김제동이 아홉시반 주립대학 총장으로 취임하는 뉴스 보도 형태의 광고 동영상을 유튜브와 아홉시반 주립대학 공식사이트에 배포했다. 이 사이트는 개설 5일 만에 방문자수 10만명을 넘어섰다.

오비맥주의 '카스라이트'의 새 광고도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회사 측은 새 모델로 감성 입담을 자랑하는 유희열과 건강미 넘치는 연기자 이태임을 선정했다. 이 광고에서 유희열은 미남 배우가 주를 이뤘던 맥주 광고모델의 틀을 깨 화제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배달의 민족'은 광고에서 류승룡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어울리는 재치 있는 카피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넌 나의 든든한 벽'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에코백, '잊어놓고 긁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카드케이스 등 브랜드 상품에서 키치적인 감성을 선보여 주목 받은 바 있다.

이번 광고에서도 고전 명화 패러디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재미있게 전달해 '역시 배달의 민족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배달의 민족 디저 광고는 조회 수 100만건을 넘어섰으며, 페이스북 공유 횟수는 800회 이상을 넘어선지 오래다.

/정혜원기자

오비맥주 '카스라이트' 광고 장면
보해양조의 김제동 주(酒)립대학 총장 광고 사진.

월드컵 '큐트 몬스터 한정판' 출시

MCM, 응원용품 증정 등

독일 명품 브랜드 MCM은 '2014 MCM 큐트 몬스터 리미티드 에디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세계인의 축제인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출시된 이번 에디션은 브라질 문화의 열기를 그대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한정판으로 출시되며 브라질 국기 색상을 바탕으로 한 퍼즐 모양 캐릭터에 오각형이 모여 둥근 축구공이 되고 여러 국가가 모여 하나의 페스티벌을 완성시킨다는 세계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

주요 제품으로 백팩·파우치·쇼퍼백·클러치·미니백 등이 있으며 여행에 필요한 장지갑, 여권 지갑, 카드 지갑, 키 홀더 등 다양한 라인으로 구성됐다.

MCM 큐트 몬스터 에디션은 1일부터 청담동 'MCM HAUS', 가로수길 'MA'ZIT', 명동 'MCM SPACE', 롯데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등에서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한편 MCM은 이번 한정판 출시를 기념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매장에서 주중 구매 금액이 가장 높은 고객에게 특별 제작된 비세토스 축구공을 주는 이벤트를 벌인다.

또한 이번 에디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호루라기, 팔찌, 타투스티커 등의 한정판 '2014 큐트몬스터 서포터즈 킷'을 증정할 예정이다.

문의 02) 540-1404 /김학철기자

르네상스 서울호텔서 즐기는 Hot한 여름!

서머 패키지 3종 선보여

르네상스 서울호텔이 실속 있는 여름 휴가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8월 31일까지 서머 패키지 3종을 선보인다.

3종의 서머 패키지는 ▲서머 세이빙 패키지 ▲서머 딜라이트 패키지 ▲서머 패밀리 패키지로 구성돼 있으며 유리돔 실내 수영장과 르네상스 레크리에이션 센터 무료 이용, 사우나 50% 할인 혜택이 공통으로 제공된다.

서머 세이빙 패키지는 공통 혜택과 함께 디럭스 룸에서의 1박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며 서머 딜라이트 패키지의 경우는 공통 혜택과 더불어 디럭스 룸 1박 및 카페 엘리제 2인 조식 등이 포함된다. 또 서머 패밀리 패키지는 딜라이트 패키지와 동일한 혜택에 어린이 조식, 인기 보드게임 루미큐브 트래블 키트가 추가된다. 문의 02)2222-8500

/황재용기자 hoo1308@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별별 유기농 화제

유기(62)데이 맞아 농·축산물부터 가공식품까지 다양

6월 2일은 유기농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지정한 '유기(62)데이'이다. 올해로 9회째다. 국내에 유기농 트렌드가 시작된 초기에는 농·축산물 등 자연 식품이 대표적인 유기농 식품군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공식품까지 유기농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매일유업 상하목장의 '유기농 딸기 바나나 우유'이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시판되는 딸기·바나나 우유 중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농 가공식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청정지역 고창에서 자란 상하목장 젖소의 원유를 사용하고 합성색소나 합성향료 등의 첨가물 대신 유기농 딸기와 바나나 과즙으로만 맛을 냈다.

라면은 대표적인 정크푸드로 인식되고 있는 제품이다. 그러나 최근 라면도 유기농 재료로 만든 건강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자연드림에서 출시한 '오가닉 라면'은 면과 스프의 원재료 95% 이상을 유기농으로 사용한 국내 최초 유기농 라면이다. 면은 유기농 우리밀과 유기농 감자전분을 사용했고 분말 스프는 화학첨가물의 사용 없이 유기농 재료를 농축·분쇄·건조했다.

배상면주가가 지난 2013년 선보인 '유기농 막걸리'는 100% 유기농 쌀만 사용해서 만들었다. 일체의 인공감미료(아스파탐)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공적인 단맛이 없으며 담백한 풍미와 부드러운 목 넘김이 특징이다.

매년 고속 성장하고 있는 프리미엄 워터 시장도 유기농 열풍이다. 하이트진로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수입·판매하는 '노르디 코이뷰'는 핀란드산 100% 유기농 자작나무 수액 제품으로 핀란드 식품안전관리국에서 부여하는 유기농 인증을 획득했다. 자작나무 수액은 소화촉진을 돕고, 신진대사 활성화, 요도통증 완화, 체내 해독 작용, 혈액순환 증대 등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정혜원기자

그리스 핸드백 뜨와앤므와, 첫 콜라보 출시

2013년 10월 국내에 첫선을 보인 그리스 핸드백 브랜드 뜨와앤므와(Toi&moi)는 2014년 여름 시즌 핸드백 디자이너 로렐 리버민과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로렐 라인은 감성적인 악어가죽 소재와 파스텔 톤의 색감이 돋보이는 밀라노 특유의 디자인에 지중해의 밝은 감성과 실용성에 중점을 둔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첫 콜라보레이션 제품인 만큼 젊은층에게 큰 호응을 기대하고 있으며 블랙, 민트, 라이트핑크 각 50개 한정수량으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토트백은 23만9000원, 숄더&클러치백은 16만9000원에 판매된다.

/김학철기자

블루 컬러 메이크업 '주목'

올 여름 팩트 타입 베이스 제품 등 인기 예상

올 여름 뷰티 트렌드는 촌촌한 베이스 제품으로 연출한 촉촉하면서도 보송한 피부와 함께 래디언트 오키드 및 블루 컬러를 사용한 색조 메이크업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럽고 투명한 피부와 보송한 피부 결을 만들어 주는 것이 포인트다. 특히 선 케어 기능을 겸비하고 여러 번 가볍게 덧바를 수 있는 팩트 타입의 베이스 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마몽드 '젤리 팩트'는 반죽처럼 쫀쫀한 젤리 제형이 내 피부처럼 밀착돼 자연스럽고 매끈한 피부 결과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을 주는 팩트 제품이다. 자외선 차단 기능은 물론 파운데이션과 파우더의 장점만을 결합시켜 화사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바닐라코 '익스테이 마블 팩트'는 프라이머의 지속력, 파운데이션의 탄력력과 커버력, 파우더의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을 한번에 주는 올인원 제품이다.

색조 메이크업은 올 봄·여름 시즌 트렌드 컬러인 래디언트 오키드와 함께 전통적인 여름 컬러인 블루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한정 출시되는 코스메 데코르테의 AQMW 라인 여름 메이크업 컬렉션 '카프리 블루'(사진 아래)는 독특한 블루 패키지로 소장 가치를 높였다.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브라이트 리본 컬렉션'은 여름 정원의 화사한 꽃 컬러와 오간자 패브릭의 투명함을 모티브로 한 제품이다. 오키드 컬러를 필두로 구성된 6가지 립스틱과 6가지 네일 컬러가 우아한 느낌을 준다.

스킨푸드의 2014 여름 메이크업 라인 '펄 오이스터'(위) 중 '해조 미네랄 워터프루프 아이섀도우 스틱'은 강력한 워터프루프와 롱래스팅 효과로 하루 종일 생생한 아이 메이크업을 유지시켜 준다. 포인트 메이크업으로 활용하면 좋은 시원한 미네랄 블루 컬러를 포함해 6가지 컬러가 출시됐다.

/정혜인기자 hjune0404@metroseoul.co.kr

日대사관, '미래로 통하는 길' 전시

신세대 작가 11인 개인적 모티브 작품 선보여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일본국제교류기금과 공동 주최하는 '미래로 통하는 길-일본의 신세대 아티스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전시에서는 2000년 이후 일본 현대미술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후쿠이 이쓰시, 나키무라 테쓰야, 메이와덴키, 사이키 카쓰히로 등 신세대 작가 11명의 작품 약 40점이 소개된다.

1990년대 이후 세계를 규정하고 있던 큰 틀이 흔들리자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등 작고 개별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경향이 생겼다. 현대미술에서도 일상성에 의거해 개인의 지각과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의 작품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번 전시회는 이런 시대환경과 마주하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의 작가 11명이 제작한 회화, 조각, 설치미술, 사진, 비디오 등의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작가 자신의 개인적인 모티브를 적용하는 그들의 작품은 시각적 효과가 뛰어나며 '무언가를 만든다는 일'에 대한 강한 집념을 느낄 수 있다.

전시는 오는 16일부터 10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실크갤러리에서 진행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토·일요일은 휴관이다.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내선120·123))

/정혜인기자

'어다의 샌들' 출시

슈즈 브랜드 크록스(대표 이남수)는 1일 청담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어다의 샌들'로 불리는 후쿠시 샌들 '워지'의 여름 신상품을 선보였다. 또 크록스는 고객 100여명과 임직원이 술 월대 5km를 걸리면서 기부 크록스 슈즈를 제공하는 어셈블리 걷기대회 행사인 '크록스 힐러몬 워킹' 대회도 열었다. /크록스 제공

콜러, 부산 쇼룸 오픈…한국 시장 공략

아시아 지역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투자

미국의 명품 주방·욕실 브랜드 '콜러(KOHLER)'가 부산에 쇼룸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한국 시장 공략을 펼쳤다.

콜러는 부산 최대 욕실 업체이자 콜러의 공식 판매업자인 유산비우징을 통해 부산 중앙동에 쇼룸을 오픈하고 지난 30일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콜러는 141년의 전통을 가진 브랜드로 스타일과 기술력을 접목시킨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업체다.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런던의 호텔 사보이를 비롯해 국내의 롯데호텔, 신라호텔 등의 특급호텔과 고급 주거시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번 부산 쇼룸 개장은 동북아 최초 주방·욕실 단독 쇼룸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

오픈 행사에 참석한 데이비드 콜러(사진) 사장은 "한국 진출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노비타와의 협병, 쇼룸 확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며 "경제 규모나 역동성 등으로 볼 때 한국은 매우 영향력 있고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철길과 물길이 만나는 기차여행!

코레일관광개발, K water-워터웨이플러스와 MOU

철길과 물길이 만나는 기차여행 상품이 개발된다.

코레일관광개발(대표 이건태)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사업본부(본부장 윤보훈), 워터웨이플러스(사장 김종례)와 경인아라뱃길과 강문화관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은 철도와 수변관광 인프라를 활용해 관광 수요 증대,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새로운 기차여행 상품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경인아라뱃길과 강문화관의 관광 인프라를 비롯해 최근 각광받는 레저·스포츠 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기차여행 상품을 개발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아라뱃길 상품은 하계 시즌에 맞춰 출시될 예정이다.

/최재훈기자

"우리 떴어요"

"술 먹으면 전화하는 사이다." 개그맨 이문재(31)와 이상훈(32)은 완벽한 호흡으로 인터뷰를 했다. 이문재는 KBS2 '개그콘서트'(이하 개콘) '두근두근' 코너로 썸(남녀 사이에 사귈 듯 말듯한 관계) 열풍을 일으키며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상훈은 '시청률의 제왕' '후궁단'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감초 연기자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개그콘서트 인기남 ······ 이상훈·이문재

◆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상훈 이제 막 신인에서 벗어났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 길거리를 다닐 때 사람들이 속삭이는 정도다. 지방 행사를 가면 인기를 실감하기도 한다.

문재 식당 아주머니가 사이다를 공짜로 줄 때 떴다는 걸 느꼈다.

◆ 팬 연령대가 다양할 거 같다

문재 코너에 따라 변한다. 개콘 코너 '나쁜 사람' 을 할 땐 아저씨 팬이 있었다. '두근두근'은 여성들이 좋아한다.

상훈 비슷하다. '감사합니다' 코너에선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는데 '줌도둑'에 출연하니 아이들이 울었다.

◆ (상훈) 8번 도전 끝에 개그맨이 됐다. 어릴 때부터 꿈이었다

그렇다. 심현래 선배를 존경했고 비디오로 녹화를 해서 반복 시청했다. 지나치게 외향적이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꿈을 잃었나. 물리치료학을 전공해서 물리치료사로 2년 6개월 근무했다. 만족하고 있었는데 지인들이 '개그맨 왜 안 하냐'고 자꾸 말했다. 치료사 3년 차에 연봉이 동결됐다.(웃음) 인생의 전환점이란 생각에 6개월만 해보자고 했는데 1~2년이 지났고 25세에 '개그스타' 다음해에 개콘 개그맨이 됐다.

KBS2 '개그콘서트' 코너 '두근두근' 이문재, 정효민

코미디 연극 '시크릿'이란 극단에서 활동했다. 이때 생긴 팬이 방송 모니터링을 해준다. 그런데 요즘 망하고 있다.(웃음) 팬 카페에 회원들이 쓰는 글보다 내가 쓰는 게 많아서 최근엔 자제 중이다. 신비주의를 유지할 생각이다. SM 등 유명 기획사 오디션도 봤다. SM에 갔더니 초등학생·중학생이 경쟁자였다. 투표로 결정되는데 당시 94년생이랑 붙어서 졌다.

◆ (문재) '두근두근' 외 잠호연과 사귀길 바라는 팬이 많다

정말 비즈니스 적인 관계일 뿐이다. 현재 여자친구 없다.

◆ 연애 스타일은 어떤가

문재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른다. '두근두근' 코너 회의 때도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거의 제외될 정도다.

상훈 2년 동안 외롭다는 생각은 안 했다. 운동하다가 다쳐서 혼자 물리 치료를 했는데 그때 처음 외로움을 느꼈다. '두근두근'처럼 여자 친구는 있는데 그 이상 발전은 안 될 거 같다.

문재 이상훈은 다 퍼준다. 'MP3 쉬 하면 다 준다.' 동기들 사이에서 별명이 아웃사이더다.

상훈 개인주의적이다. 술자리도 잘 안 가서 아웃사이더라는 별명을 동기들이 지어줬다. 최근 정태호에게 생일 선물로 60만 원짜리 헤드폰을 줬다. 경품으로 받은 거다. 근데 정태호는 내게 5만 원짜리 선물을 줬다.

◆ 개그우먼과의 연애를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 동종 업계에 있고 없고는 상관 없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별로라고 생각한다.

상훈 예전에 일반인 여성과의 교제 사실이 공개됐었다. 한 달 정도 만난 건데 공개돼 곤혹스러웠다. 애인이 생긴다면 오래 만나보고 공개 연애를 할 거다. 근데 개그우먼과 결혼하면 병시비 등 비상금을 못 생긴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다.(웃음)

◆ 가수나 연기자로 활동할 계획이 있나

문재 이상훈은 연기에도 잘 할 거다. 개콘 내에서 오래 갈 것 같은 사람으로 이상훈을 꼽는다.

상훈 특징이 없어서 그렇다.

문재 연기를 해보니까 남의 연기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상훈은 두루 잘한다.

상훈 '시청률의 제왕' 코너에선 매주 캐릭터가 바뀐다. 일 년 정도 하면서 많이 배웠다.

/권효진기자 sa[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디자인/[illegible]

오늘 저녁 8시 50분 첫방송 tvN

김현중 일본 1만 팬 열광

드라마 '감격시대'를 들고 일본을 찾은 한류스타 김현중이 1만 명의 팬을 불러모았다.

김현중은 8일 일본 케이블 채널 DATV에서 방영되는 '감격시대'의 일본 프로모션을 위해 지난달 30일 현지에 도착했다. 1000여 명의 팬들이 하네다 공항에 마중나와 환호했다.

31일 파시피코 요코하마 국립대홀에서 '감격시대 프리미엄 팬미팅 2014'를 진행했다. 2회에 걸쳐 진행된 팬미팅에는 1만 명이 참석했으며 김현중은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감격시대' OST인 '오늘이 지나면' 등을 열창했다.

드라마에 함께 출연했던 임수향도 무대에 올라 액션 연기, 러브신 등을 함께 촬영했을 당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감격시대'는 DATV에서 8월 9일 정식 방영된다.

한편 김현중은 18일 일본에서 네 번째 싱글 '꽃 선'을 발매한다.

/유순호기자

김태희 중국 드라마 도전

배우 김태희(사진)가 중국 드라마에 도전한다.

김태희의 소속사 루아엔터테인먼트는 "김태희가 중국드라마 '서성왕희지'에서 여주인공 씨루이 역으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성왕희지'는 중국의 위대한 서예가인 '왕희지'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중국 배우 왕인군이 왕희지 역을 맡았으며 김태희는 왕희지의 부인 씨루이를 연기한다.

씨루이는 왕희지가 시대와 국경을 초월하는 위대한 서예계의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운 동반자이자 조력자다. 또 그는 총명하고 기백이 넘치며 왕희지의 글씨에 날카로운 직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이다. 김태희는 지난해 '장옥정'에서 선보였던 남장 여인의 모습을 이번 작품에서 다시 한 번 보여줄 예정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현재 김태희는 지 덕 재를 겸비한 씨루이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중국어공부와 서예수업 등 왕희지에 관한 공부에 매진 중"이라며 "'서성왕희지'는 중국의 성인을 다룬 드라마이지만 그 안에는 신라와 백제인과의 교류 등도 다루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김태희는 이달 중순 출국해 3월까지 횡지우 세트장에서 촬영할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싸이 글로벌 프로젝트 3탄 공개

신곡 '행오버' 8일 발표…미국행 본격 활동

싸이가 8일(미국 현지시간) 신곡 '행오버'를 최초로 공개한다.

싸이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이날 오후 7시 미국 ABC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 게임 나이트'에 세계적인 힙합 뮤지션 스눕독과 함께 출연해 '행오버'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지미 키멜 라이브 게임 나이트'는 매년 NBA 결승전 직후 방송되는 '지미 키멜쇼'의 특집 생방송으로 시청자수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은 프라임 타임 쇼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중 조명을 더욱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싸이는 '행오버' 뮤직비디오를 이날 생방송에서 최초 공개한 직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할 예정이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9일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시) 전세계 아이튠스에 음원을 출시한다.

'행오버'는 '강남스타일' '젠틀맨'과 전혀 다른 힙합 장르로 싸이의 새로운 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세계 힙합의 아이콘인 스눕독의 도움으로 힙합의 본고장에 얼마나 입지를 다질 지도 주목된다.

미국 프로모션을 위해 1일 미국

에 도착한 싸이는 한시 만에 미제 MZ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노래는 완전한 힙합곡"이라고 소개하며 스눕독의 노움으로 랩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싸이의 글로벌 히트곡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지난달 31일 유튜브 사상 최초로 20억 뷰를 돌파했다. 2012년 7월 15일 공개된 이 뮤비는 5개월 만에 10억 뷰를 돌파하며 최단 기간 최다 조회수 기록을 세웠다. 이어 1년 5개월 만에 10억 뷰를 추가하며 식지 않는 인기를 입증했다.

'강남스타일'은 올해로 9주년을 맞은 유튜브 역사상 최초로 20억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이며 해당 조회수의 97%는 해외에서 접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남스타일'의 뒤를 잇는 곡인 '젠틀맨' 뮤비도 지난해 유튜브에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동영상으로 집계됐다. '젠틀맨' 뮤비는 31일 낮 12시30분 기준으로 6억8895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2억뷰 돌파를 기념하는 이미지

'멜로' 빠진 자리 '재미' 삽입

'연애만 하는 한국 드라마' 탈피 다양한 소재 다룬 작품들 눈길

어떤 장르를 다뤄도 한국 드라마엔 사랑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옛말이 될 듯하다.

최근 주요 줄거리에 남녀간의 연애보다 다른 부분에 무게를 둔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JTBC 월화극 '유나의 거리'는 2014년판 '서울의 달'로 불릴 만큼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담아냈다. 극중 소매치기 강유나(김옥빈)는 서른 살 백수 강창만(이희준)과 러브라인을 형성하지만 이들과 같은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꽤 크다. 특히 전직 건달 '꽃뱀' 배우 지망생 등 직업·성별 나이까지 천차만별인 개성 만점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유나의 거리'를 더욱 재미난 드라마로 만들어준다.

MBC 수목극 '개과천선'은 승소만이 유일한 삶의 이유였던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 김석주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후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김석주(김명민)와 콤비는 인턴 이지윤(박민영)이 늘 함께하지만 극 중반에 접어든 지금까지 특별한 '연애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

또 5회부턴 석주의 약혼녀 유정선(채정안)이 등장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애정이 아닌 정략적 이해관계가 더 크게 얽혀있다. 특히 '개과천선'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극에 녹여내 리얼리티를 더했으며 긴장감 넘치는 법정신은 한국 법정드라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 최초로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한 OCN 일요극 '신의 퀴즈'는 범어관 사무소 엘리트 의사들이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메디컬 범죄 수사극이다. '신의 퀴즈4'가 앞선 시즌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주인공 한진우(류덕환)와 강경희(윤주희)의 러브라인이 본격적으로 그려지고 있단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감초역할 정도이며 전체적인 이야기는 철저히 추리에 맞춰져 있다. '신의 퀴즈'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와 세련된 연출로 드라마 팬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김지민기자 language@

유나의 거리 / JTBC

개과천선 / MBC

할리우드 SF 대작 극장가 장악

'엑스맨' 시리즈 최고 흥행 이달 '트랜스포머'도 개봉

할리우드 SF 블록버스터가 극장가를 장악했다.

1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는 지난달 31일 관객 37만105명을 동원해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개봉일인 22일부터 집계된 누적 관객 수는 279만4134명이다. 이로써 개봉 10일 만에 '엑스맨' 시리즈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2011년)의 253만3852명을 넘었다.

올해 칸국제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된 한국 영화 '끝까지 간다'(29일 개봉)는 이날 22만2355명을 모아 2위에 머물렀다. 앤젤리나 졸리의 첫 악역 도전작으로 흥행이 예상됐던 '말레피센트'(29일 개봉)도 18만7509명에 그쳐 SF 블록버스터의 흥행세를 넘지 못했다.

'엑스맨' 신작은 사상 최강의 적이자 인류를 위협할 강력한 무기 센티널에 맞서기 위해 과거와 미래의 엑스맨이 모두 모여 전쟁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았다. 휴 잭맨·제임스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엣지 오브 투모로우

맥어보이·마이클 패스벤더·제니퍼 로렌스·할리 베리·엘런 페이지·이안 맥켈런·패트릭 스튜어트 등이 출연했다.

앞으로 SF 블록버스터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4일 톰 크루즈 주연의 '엣지 오브 투모로우'가 개봉하고, 25일에는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신작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가 관객과 만난다. 다음달에는 '혹성탈출' 시리즈의 신작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과 마블 스튜디오의 신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개봉해 SF 블록버스터의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환기자 bsk1027@metroseoul.co.kr

가구야 공주 이야기

엘사 버금가는 매력 공주 온다

지브리 애니 '가구야…' 4일 국내 상영

1000만 관객을 사로잡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엘사에 버금가는 매력을 지닌 일본 공주가 한국 관객을 찾는다.

일본 애니메이션 명가인 스튜디오 지브리의 감성 판타지 '가구야 공주 이야기'가 4일 개봉한다. 이 애니메이션은 대나무 숲 속에서 태어나 반 나절 만에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한 가구야 공주의 이야기를 다룬 일본의 설화 '다케토리담'을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다.

가구야 공주는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인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손을 거쳐 매력적인 캐릭터로 재탄생 됐다. 배급사는 "가구야 공주는 지브리 사상 최고의 절세 미녀라고 칭해질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 또 범접할 수 없는 신비한 매력과 주변인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까지 갖춘 매력적인 공주"라며 "엘사에 열광했던 팬이라면 가구야 공주에게도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흥행을 기대했다.

'가구야 공주 이야기'는 다카하타 이사오 감독의 14년 만의 신작이다. 8년간의 제작 기간이 소요됐고 총 50억 엔(한화 약 505억 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으로 국내 영화 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음악감독 히사이시 조가 참여했다.

/박성환기자

제11회 베니스데이즈 공식 홈페이지에 소개된 '일대일'

한국영화 해외서 연일 주목

'일대일' 베니스데이즈 초청 '봄' 마드리드 3개 부문 후보

한국 영화가 칸국제영화제가 끝난 뒤에도 다양한 해외 영화제에서 연일 주목받고 있다.

김기덕 감독의 '일대일'이 8월 27일에 개막될 제11회 베니스데이즈에 초청됐다. 이로서 김 감독은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의 영예를 얻은 '피에타'(2012년),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 초청작인 '뫼비우스'(2013년)에 이어 3년 연속 베니스를 방문하게 됐다.

베니스데이즈는 베니스국제영화제 기간 중 이탈리아 영화 감독 협회와 제작가 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되는 영화제다. 비교하자면 칸국제영화제 기간 중 개최되는 감독주간에 해당한다.

해외배급사 화인컷은 "베니스데이즈는 매해 12편의 장편 영화를 초청한다. 이번 '일대일'의 초청 소식은 그간 유럽 작가주의 영화가 강세를 띈 베니스데이즈에서 일궈낸 성과로 그 의미가 뜻 깊다"고 설명했다.

조근현 감독의 영화 '봄'은 다음달 11일 개막될 2014 마드리드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외국어영화 부문 최우수 여우주연상과 최우수 제작자상 등 세 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다. 그중 김서형은 한국 여배우 중 최초로 마드리드국제영화제 후보가 됐다.

/박성환기자

한국영화 기대작 정면대결

4일 '하이힐' '우는 남자' 12일 '경주' '황제…' 개봉

한국영화 기대작이 같은 날 맞대결을 벌여 눈길을 끈다.

'우는 남자'와 '하이힐'이 4일 나란히 개봉했다. '우는 남자'는 원빈 주연의 '아저씨'를 연출한 이정범 감독과 톱스타 장동건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는 작품이다. 킬러 곤(장동건)이 조직의 마지막 명령으로 목표물 모경(김민희)을 만나고 임무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장진 감독의 누아르 도전작인 '하이힐'은 내면의 여성적인 자아로 남몰래 고뇌하는 강력계 형사 지욱(차승원)이 운명을 뒤바꿀 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차승원이 극중 여장에 도전한 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두 작품 모두 19금 영화라는 점에서 흥행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황제를 위하여'와 '경주'도 12일 동시에 개봉한다. '황제를 위하여'는 부산을 배경으로 이긴 놈만 살아 남는 도박판 같은 세상에서 서로 다른 황제를 꿈꾸는 두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누아르 영화다. 짧은 머리를 하고 거친 매력을 발산하는 이민기의 연기 변신이 눈에 띈다.

'경주'는 수상한 남자와 엉뚱한 여자의 설레는 만남을 그린 로맨스물로 박해일과 신민아의 로맨스 연기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작품은 장르가 전혀 달라 흥행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성환기자

하이힐 / 황제를 위하여

날씨

6/2 月 일출시각 05:12 일몰시각 19:4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6.co.kr

서울 · 청주 · 대전 · 전주 · 광주 · 제주 · 강릉 · 울릉도 · 대구 · 포항 · 울산 · 부산

뇌졸중의 원인 중 하나인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혈압을 체크하는 등 지속적인 혈압관리를 통해 고혈압을 예방해야 합니다.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신체의학 지원센터 [illegible]

어떤 엘리트주의

함정선의 모놀로그

엘리트들이 기득권층인 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엘리트주의는 참 유난하다. 입시 경쟁에 지쳐 매년 자살하는 학생들이 느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스펙을 쌓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명문대를 나와도 좋은 직장을 위해 또 다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서른 중반 넘어서는 출신대학이 별 의미가 없는 데도 모든 아이들의 꿈은 일단 '명문대 들어가기'로 귀결된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이토록 엘리트주의를 향한 열망은 노골적인데 사람들은 서로 출신 대학을 묻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양에서 나이나 결혼여부를 묻는 것이 실례한 것처럼 다들 예민하고 조심스럽다. 반면 몇 살이냐, 결혼했냐는 편하게 막 묻는다. 학번 얘기나 대학 시절 어느 동네에서 놀았는지를 슬쩍 물어보면서 겨우 힌트를 얻는다. 명문대 출신이라면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 '봉천동에서 하숙할 무렵'이라거나 '신촌에서 학교 다닐 때' 식으로 둘러 말한다. 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망함이란.

숨기거나 둘러 말하는 심리는 뭘까. 한국에서 명문대 출신은 단순히 '공부를 잘했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기득권을 강화, 유지하리라는 어떤 일그러진 믿음과 고정관념 때문이 아닐까. 마치 우리집 부자다라고 말 못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몸 사리는 제스처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그만큼 출신대학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지 못하는 분위기에는 어딘가 위선적인 데가 있다.

이렇게 면대면으로 출신대학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우면서 그 외 모든 상황에서 명문대 출신들은 대학이름을 노골적으로 앞세운다. 중매시장에서도 출신 대학으로 남녀를 매칭시킨다. 선거 때는 말할 것도 없다. 한 유력 교육감 후보는 한국 학생들의 지옥 같은 경쟁 환경을 막고 선인적인 교육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이에 자신이 거친 한국과 미국의 명문대와 고시 3관왕이라는 타이틀을 특장점으로 내세운다. 나는 이런 병적인 모순을 본다.

/칼럼니스트 [illegible]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7		9		
			2			5	3	
9		1	5		4			6
					5	8		
4	9						5	7
		5	7					
6			9		7	3		2
	7	9			2			
		8		3			1	

	1	7	8		9			
4								2
	8	9		4				
		4	2				6	1
8		3				9		5
9	2				3	7		
				8		6	5	
6								9
			1		6	2	4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엔사 스도쿠 러미티드〉(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순탄한 생활 노후직업 어떤게 현재 직업 꾸준히 유지하도록

[illegible]

Q 매일 메트로 신문으로 대화를 합니다. 3월 9일 아침이 제생일인데 재물 운이 있는지와 노후에 직업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고난은 없었지만 화려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순탄할지요?

A 을목(乙木)이라는 화초가 봄에 태어났으니 자기의 계절을 맞아 신강(身強)한 사주입니다. 구변어취산유수와 같고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듯이 평생 분주하니 한 우물을 파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직업을 가져도 안정되지 못함이 있으므로 현재 직업을 꾸준히 유지발전해야 합니다. 예술계통과 인연은 있으나 일반 교육으로 갔다고 보는데 자기의 취미를 살릴 수 있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정과 희로애락의 표현이 분명하여 퇴직 후 개인의 역량으로 제 2의 전성기가 오는 운세입니다. 그러나 고란과숙(孤鸞寡宿)살이 있어 남편과 헤어지거나 독수공방을 겪을 수가 있으니 가정사문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컴퓨터 직종에 소심한 편인데 욕심 부리지말고 실력 연마를

[illegible]

Q 성미가 소심하고 신경이 예민하여 보통일도 크게 생각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방점을 못지면서 생각에 몰두 하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염려됩니다. 지금은 컴퓨터 원격조정으로 서비스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A 신금(辛金)생일이 묘월(卯月)에 태어 난사람은 신경쇠약증을 앓기 쉽습니다. 본성 '문으로 흙토끼상'으로 의혹과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아 스스로 불편해지기 쉬우나 성실하므로 재물은 착실히 모입니다. 확실한 재물이며 큰돈은 아니므로 욕심을 부리면 날카로운 가름로 잘리는 화초처럼 큰 빛을 지고 살게 됩니다. 천지불합(天地不合)하여 부부간에 굴곡이 있으니 나이차이가 나는 사람을 만나야하며 9월에 인연이 닿게 됩니다. 편충살(偏衝殺 기둥)로 할인(割人)하는 기운이 있으니 공인성 工業의 기술계통 직장인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귀하 또한 현재의 컴퓨터 원격조정 서비스 업종이 천직이 되니 착실하게 실력을 쌓아 가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illegible] 김학수 인생상담 [illegible]

쥐 48년생 급할수록 평정심 필요하다. 60년생 돈과 관련된 일은 일단 피하라. 72년생 직장인은 거취문제로 고민한다. 84년생 걱정한다고 없어지지 않으니 편안히 생각할 것.

소 49년생 고혈압환자는 막 챙겨라. 61년생 멀리서 반가운 벗이 찾아온다. 73년생 꿈이 사나우면 위험성 있는 일은 삼가라. 85년생 명예에 연연하면 잃는 게 많다.

호랑이 50년생 유원할 사람이 생겨 좋다. 62년생 투자문제는 판단을 신중하게 하라. 74년생 작은 것이 나가고 큰 것이 들어올 게이다. 86년생 미래의 투자니 적극 배풀라.

토끼 51년생 좋고 싫음 표현은 자제하라. 63년생 고민은 시원하게 해결된다. 75년생 착각으로 인한 실수 조심할 것. 87년생 모임에 가면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용 52년생 배우자 작건 따르면 편안하다. 64년생 자녀의 일로인 충계보단 활동으로 보여주라. 76년생 걱정된 일은 무사히 넘긴다. 88년생 경쟁자와 맞대결은 피해라.

뱀 53년생 명분보단 실리 선택하라. 65년생 보물찾고 같은 귀인을 만난다. 77년생 상상이 현실화 될 수 있으니 기대하라. 89년생 오해의 늪서 빠져나와 기쁘다.

말 42년생 묵든 쓸 일이 생긴다. 54년생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 지키라. 66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면 나중에 큰 것 들어온다. 78년생 병 주고 약 주는 자녀가 되지 말라.

양 43년생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버려라. 55년생 믿었던 사람이 기대에 부응한다. 67년생 구설수 있으니 말은 아끼고 조심할 것. 79년생 고민은 털어놓으면 해결된다.

원숭이 44년생 지손 덕에 원기보험 한다. 56년생 생각이 틀려도 대세 따르라. 68년생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격이다. 80년생 적성에 맞는 취미가 생겨 유쾌한 하루~

닭 45년생 문서 일은 신중할 것. 57년생 마음을 비우면 근심은 사라진다. 69년생 벗이 등 돌려도 실망하지 말라. 81년생 지나간 일에 연연하면 전진 못한다.

개 46년생 남의 일로 바빠진다. 58년생 문서 일은 세부사항 잘 살피라. 70년생 꿈과 현실의 격지기 심해 우울하다. 82년생 목표를 이루려면 실수를 두려워 말라.

돼지 47년생 돈으로 인한 언어실수 조심~ 59년생 형제에 진 빚을 갚을 수 있어 가뿐하다. 71년생 공직은 자리선 감정표현 잘 하라. 83년생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류현진 시즌 6승 ML 통산 20승

피츠버그전 6이닝 2실점 …부상 복귀 후 3연승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부상에서 복귀한 후 3연승을 달렸다.

류현진은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동안 10피안타 무사4구 탈삼진 4개 2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6승(2패)을 달성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데뷔 후 40경기 만에 통산 20승 고지에도 올랐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3.10에서 3.09로 낮아졌다. 109개의 공을 던졌으며 최고 구속은 시속 94마일(151㎞)을 기록했다. 다저스 타선은 14안타를 몰아치고 올 시즌 팀 최다 득점 경기를 펼치며 류현진의 어깨를 가볍게 했다. 다저스는 12-2로 승리했다.

피츠버그는 선발 전원을 우타자로 배치했지만 두구감이 물 오른 류현진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다.

1회 첫 타자 조시 해리슨을 안타로 내보낸 류현진은 연달아 아웃카운트 3개를 잡으며 무난하게 첫 이닝을 넘겼다. 2회초에는 2사 후 조디 머서와 크리스 스튜어트에게 연속 안타를 내줬지만 두수 브랜던 컴던을 땅볼로 잡으며 더 이상 진루를 허용하지 않았다.

3회를 삼자범퇴로 넘긴 류현진은 4회 2사 후 호세 타바타에게 내야안타와 2루타를 연속으로 허용하며 첫 실점을 했다. 5회에는 무사 2·3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후속타자들을 범타로 처리하며 위기를 넘겼다.

6회에는 2사 1·2루에서 우익수 쪽 적시타를 맞으며 두 번째 실점을 했다. 류현진의 뒤를 이어 7회에 등판한 제이미 라이트는 3이닝 동안 안타 하나만 내주는 호투로 10점차 승리를 마무리 지었다.

류현진은 "안타를 많이 맞았지만 워낙 크게 앞서고 있기에 한 두 점 주는 건 신경쓰지 말자는 생각으로 던졌다니 점수도 별로 주지 않았다"고 경기 소감을 밝혔다.

이날 메이저리그 통산 20승을 달성한 류현진은 "내가 이룬 성과에 만족한다. 앞으로도 몸 관리를 잘해서 꾸준하게 등판하고 계속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 등판은 7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원정 경기로 예상된다.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덴버 쿠어스필드에 등판할 예정인 류현진은 "아무리 타자들이 유리한 곳이라지만 거기서도 잘 던진 투수들이 많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 잘 해낼 거라 믿는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마이애미 지옥훈련 돌입

홍명보호 러시아전 총력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둔 축구 대표팀(사진)이 미국 마이애미에 도착하자마자 강도 높은 훈련을 시작했다.

홍명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현지 도착 이틀날인 1일 세인트 토머스 대학교 축구장에서 수비 조직력 강화를 시작으로 훈련에 돌입했다. 훈련 당시 기온은 섭씨 29도에 습도가 66%까지 올라갔으며 본선 조별리그 1차전이 열리는 브라질 쿠이아바와 비슷한 환경에서 실전을 대비했다.

홍 감독은 기후 환경 적응은 물론 훈련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와의 1차전에 맞춰 진행한다. 첫날 훈련도 공격수들의 콤비네이션 훈련을 병행하면서 수비 조직력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러시아의 공격력이 매서운 만큼 수비부터 완벽하게 다진 뒤 공격과의 조화를 이루겠다는 게 홍 감독의 계산이다.

또 튀니지와의 평가전에서 수비진의 바업 플레이는 물론 위력 수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강도 높은 처방을 내린 것이다.

홍정호(아우크스부르크)가 발등 부상으로 훈련에 빠진 가운데 골키퍼 3명을 제외한 19명이 두 팀으로 나눠 볼 없이 상대 선수의 위치에 따라 유기적으로 자리를 옮기는 훈련을 했다.

앞선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 결과가 성적에 큰 영향을 준 만큼 대표팀은 러시아전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유순호기자

올림픽 대표팀 평가전 전적 1일

대한민국	2	1	우루과이

▲ 대한민국 전반 19분 조준 득 후반 40분 조현수 주제 …

박인비 59주 천하 무너지나

박인비(26·KB금융그룹·사진)가 59주째 지켜온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1년 만에 세계 랭킹 1위 탈환을 노리는 스테이시 루이스(미국)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숍라이트 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에서 단독 선두로 나섰다. 1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의 스톡턴 시뷰 골프장(파71·6155야드)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8개를 기록했다.

중간합계 12언더파로 재미동포 크리스티나 김(30)을 한 타차로 따돌렸다.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우승하면 박인비를 밀어내고 세계 랭킹 1위가 된다.

전날 공동 4위였던 박인비는 1타를 줄이는데 그쳐 공동 7위(6언더파 136타)로 밀렸다. 함께 출전한 최나연(27·SK텔레콤)은 타수를 줄이지 못해 공동 9위(5언더파 137타)로 2라운드를 마쳤다.

/박상현기자 tuk0427@

윤석민 3전4기 2승 투구

7이닝 1실점…2경기 연속 QS

미국 프로야구 볼티모어 오리올스 산하 트리플A 노포크 타이즈의 윤석민(28·사진)이 네 번째 도전만에 2승을 따냈다.

윤석민은 1일 미국 버지니아주 노포크 하버파크에서 열린 포투켓 레드삭스(보스턴 레드삭스 산하 트리플A)와의 경기에서 7이닝 5피안타 1실점 5삼진 무사사구를 기록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팀은 3-1로 승리했다.

올 시즌 2승 5패 평균자책점 5.67을 기록한 윤석민은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이어가며 미국 무대에 원만하게 적응해가고 있다. 지난 10일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피츠버그 파이리츠 산하)전에서 5이닝 5피안타 3실점으로 첫 승을 거둔 이후 네 차례 등판 만에 승수를 쌓았다.

윤석민은 1회초 선두 타자 라이언 로버츠에게 안타를 맞으며 불안하게 경기를 시작했지만 후속타자 3명을 범타로 처리했다. 2회초에는 첫 타자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견제구로 잡아내는 위기 관리 능력을 보였다.

이날 유일한 실점은 4회초 트래비스 쇼에게 맞은 솔로 홈런이다. 올 시즌 9번째 피홈런이자 6경기 연속 피홈런이다. 공격적인 피칭으로 화끈 승부를 펼쳤던 윤석민이 앞으로 보완해야할 부분이다.

윤석민은 팀이 3-1로 앞선 8회초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윈슨 크리스 존스에게 넘겼다. /유순호기자

프로야구 전적 1일

■ 잠실

롯데	303	031	040	14
두산	010	011	020	5

■ 목동

LG	101	000	020	4
넥센	030	031	01X	8

■ 대전

SK	010	000	011	3
한화	500	101	20X	9

■ 광주

NC	010	000	400	5
KIA	022	002	00X	8